No. 484 • 2018. 12. 24~30 • gonggam.korea.kr

Weekly

공감



| 특집 |

아듀 2018, 2019 다시 힘찬 발걸음

새해 경제정책방향 뭘 담았나

2019 정부 업무보고 ❶

상생의 노사문화
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ILO 핵심협약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국제 기준입니다.
우리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로
오랜 기간 동안 국제사회와 약속했습니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계를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 ILO 핵심협약 :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빙점(氷點)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을 이제야 봤다. 읽지 않고 봤다고 한 이유는 책이 아니라 일본 TV아사히에서 만든 드라마였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 내 머릿속에서 〈빙점〉은 '오싱'과 더불어 신파조 통속소설의 이미지에 갇혀 있었다. 어릴 적에 언뜻 본 한국판 '빙점'이 불륜을 소재로 한 치정극이라는 인상을 뇌리에 강하게 남긴 탓이다. 나중에 미우라 아야코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며 그녀의 대표작 〈빙점〉이 기독교문학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작품이라는 걸 알았지만, 이 모순된 조합(불륜 소재 기독교문학?)은 작품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기는커녕 작품에 대한 인상을 어수선하게 만들 뿐이었다.

실제로 보니, 불륜이 중심 소재인 게 맞긴 맞았다. 존경받는 의사이자 병원장인 게이조는 미모의 아내 나쓰에와 함께 세 살배기 딸 루리코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자신의 병원에서 일하는 안과 의사 무라이가 아내에게 연정을 품고 접근하면서 이야기가 꽈배기처럼 배배 꼬여간다. 하필이면 무라이와 나쓰에가 밀회를 나누는 사이에, 딸 루리코가 납치당해 죽임을 당하기 때문이다. 이날 이후, 게이조의 심장은 싸늘하게 얼어붙는다. 아내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그는 루리코를 죽인 살인범에게 어린 딸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아내에게 그 아이를 입양하자고 제안한다. 물론 살인범의 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은 채.

제 딸을 죽인 살인범의 딸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아버지, 제 딸을 죽인 살인범의 딸인 줄도 모르는 채 온갖 정성을 다해 보살피는 어머니, 자신의 끔찍한 출신 성분도 알지 못한 채 타인을 원망할 줄 모르는 반듯하고 아리따운 아가씨로 성장하는 요코. 하지만 꽈배기처럼 배배 꼬이는 스토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요코가 명문가의 자제에게 프로포즈를 받을 찰나, 제 딸을 죽인 살인범의 딸이 이런 행복을 누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수 없었던 나쓰에(이때는 남편의 일기를 훔쳐보고 이 사실을 알았다)가 출생의 비밀을 폭로하고, 이에 게이조가 감춰진 진짜 내막(살인범의 딸을 입양하려다가 포기했고, 요코는 한 유부녀가 불륜으로 은밀히 낳은 아이다)을 고백하는 것이다(반전에 반전!).

사실 출생의 비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스토리라인, 엿듣기와 일기장 훔쳐보기로 너무도 쉽게 드러나는 추문…. 이런 요소들은 우리나라 막장드라마를 빼닮은 것이기에 가벼운 실망감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드라마의 말미에 이르러 증오, 질투, 배신, 복수 같은 진흙탕 같은 내면의 여정이 모두 용서와 구원이라는 주제의식을 목표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는 순간, 이 통속성은 필연성이 되며 일종의 알리바이를 획득한다.

가령, 자신이 살인범의 딸인 줄로 오해해 죄책감으로 자살 시도까지 했던 요코는 아주 오랜 세월이 흘러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까워서야 자기를 버린 생모를 용서한다. 용서의 계기는 간단하다. 자신이 살인범의 딸인 줄 오해했을 때 양부모에게 가졌던 사무치는 미안함과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용서받고 싶었던 그 마음을 기억해낸 것이다. 흠잡을 데 없는 고결한 인격의 소유자 게이조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자신을 향해 사랑을 보내는 여직원에게 겉으로는 냉랭했지만 속으로는 애틋하게 여겼음을 깨닫고서야 아내를 진정으로 용서한다.

왜 신이 만든 완벽한 세계에서 인간은 죄에 물들어 살아가는가. 인간에게 빛과 사랑만 주실 일이지, 어둠과 증오까지 주시는 까닭은 무엇일까. 작가는 문학을 통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가 보다. 그렇다면 미우라 아야코가 찾은 답은 무엇일까. '죄인만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다.' 이 신비로운 아이러니! 이것이 신의 아들 예수님이 죄 많은 인간의 몸을 하고 이 땅에 오신 이유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본다. 그것도 하고 많은 날들 중에 가장 어둡고 춥다는 동지 무렵에 말이다.



구승준 | 번역가·칼럼니스트

내 인생의
한 컷

내게 가장 **마술 같았던 하루**



최현우

2018년 9월 17일 월요일 이른 아침,
나는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다.
청와대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내일 출발하는 북한 방문 특별수행원에
포함되었으니 준비하라는 내용이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그날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독도를 가리키고 있는 모습

두 정상이 고른 전체 카드가 마지막에 한반도기로
변하는 마술을 선보였다. 화합으로 나아가자는 메시지였다.
그런데 두 정상이 한반도기를 발견하고 동시에 독도를
가리키는 게 아닌가. 정말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이고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두 정상은 "아, 여기 독도 있는 한반도기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도 잊지 않았다.

두 정상 사이에서 텔레파시 마술을 선보이고

준비한 것들 중에 '텔레파시 마술'도 있었는데, 북한에서는 이를
'교감 요술'이라고도 부른다. 문재인 대통령이 뽑은 카드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맞히고, 김 위원장이 뽑은 카드를
문 대통령이 맞히는 식이다. 두 정상 앞에서 마술을 선보이는
것은 내 인생 최고로 긴장되는 순간이었다. 물론 많은 공연을
해왔기에 긴장감에 익숙하지만 그날의 긴장감은 다른
느낌이었다. 혹여 나의 실수로 역사적인 순간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도 담겨 있었다.









안현철

마술을 좋아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나는 마술을 대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개방적이고 호탕한 태도에 놀라기도 했다. 공연 당시 큐브를 섞어줄 북측 인사를 요청하자 김영철 부위원장이 지목되었는데, 김 부위원장은 속임수를 쓸까 봐 경계하면서 큐브를 테이블 밑에서 섞겠다고 했다. 그러자 김정은 위원장이 "마술은 그렇게 보는 거 아니라우! 그러지 말라우!"라며 호통을 치기도 했다. 그런 모습에서 김 위원장이 평소에 마술을 얼마나 자주 보고 좋아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두 정상의 루빅스 큐브가 똑같이 변한 순간

사실 평양 방문이 결정되는 순간부터 함께했던 모든 시간이 감동적이었다. 그저 좋아서 시작한 마술이 나를 이곳까지 데려다주었다. 마술을 문화가 아닌 사기와 속임수로 치부하고 업신여기던 편견의 시간을 딛고, 역사에 남을 현장에서 대중예술의 하나로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냈다. 드디어 인정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양 공연은 다른 마술사들에게도 커다란 기쁨을 주는 시간이었다.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실감나지 않는다. 역사의 한 장면에 설 수 있었던 그날은 나에게 마법 같은 날이었다.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하는

비전마스타 이산가족영상제작팀

오동룡 | 위클리 공감 기자



CG유튜브

남북이 분단되고 73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분단의 아픔만큼이나 이산가족의 한 역시 깊어지고 있다. 대한적십자사가 2013년 제작한 10분가량의 옥선봉(당시 87세) 할머니의 영상편지는 그 아픔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황해도 연백이 고향인 옥 할머니는 6·25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겨울밤, 작은아들만 둘러업고 남쪽으로 내려왔다. 치맛자락을 붙들며 같이 가겠다는 여섯 살 난 큰아들 석우를 "곧 돌아오마"라고 떼어놓은 채…. 금세 돌아가리라던 고향길은 73년간이나 막혔고, 아들 석우는 70대 할아버지가 되고 말았다.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체 비전마스타는 대한적십자사의 의뢰를 받아 2017년부터 북녘 가족에게 유언이 될지도 모르는 영상편지를 제작하고 있다. 통일부와 적십자사가 2005년부터 신청을 받아 제작한 이산가족 영상편지는 총 1만 9541편, 올해 비전마스타가 제작한 1500편을 포함하면 모두 2만여 편에 이른다.

이산가족의 생전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기록·관리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북측과 합의 후 북측 가족에게 전달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에 전달된 영상편지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이산가족 화상상봉으로 이뤄진 20편뿐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산가족 생존자 5만 6000여 명 중 90세를 넘긴 고령자는 1만 1929명(21.1%)으로 다섯 명 중 한 명이 90세 이상 고령자다.

윤현 비전마스타 부사장은 "세상을 떠나는 이산가족 노인분들이 한 해 3800명에 달한다"며 "이분들이 옷을 단장하고 카메라 앞에 숙연하게 앉는 모습을 보면, 남북 간에 영상편지 교환만이라도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업체 아니냐는 오해도 받아

영상편지는 이산가족들의 생전 모습을 담아 기록으로 보관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이를 북측 가족에게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남북이산가족찾기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https://reunion.unikorea.go.kr)에 신청하면 되고, 관련 영상편지를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북에 가족을 두신 분들에겐 상봉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달 시기가 좀 불투명하다는 것이 안타깝지만요. 이산가족들을 찾아뵙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을 10분 분량으로 미리 편지에 적어보시라고 권합니다. 젊은 사람도 마이크 앞에 서면 떨리잖아요. 이분들께 전화를 드리면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묻는 분도 계시고, "어느 기관에서 왔느냐"며 신분증을 요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방송카메라를 꺼내놓으면 그제야 안심하시죠. KBS '이산가족찾기' 방송처럼 자기소개, 헤어진 경위, 찾는 가족, 전할 말 등을 담습니다. 처음엔 서먹해 하시다가 나중엔 중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식사하고 가라고 붙잡는 분도 많습니다.

김인선(24) 프로듀서

이산가족 영상편지, 분단의 아픔을 담는 '그릇'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아픔, 살아 있어도 만나지 못하는 그 아픔을 이해하실 수 있나요? 이산가족 영상편지를 제작하면서 그분들이 불가항력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그때의 행동을 후회하고 원망하는 일밖에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산가족 영상편지를 분단의 아픔을 담는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아픔을 가장 크게 느끼는 이산가족을 위해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가 2005년 영상편지 제작을 시작했고, 2005년 실시된 남북 간 화상상봉 현장에서 황복숙 할머님은 꿈에 그리던 언니들을 만났습니다. 당시 화상상봉은 많은 이산가족들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애초 대한적십자사는 2012년 수요조사를 완료해 2015년까지 모든 촬영을 마쳤지만, 추가로 원하는 이산가족이 많아 8000명에게 연락해 1500편을 더 촬영했고, 현재 후반부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하루빨리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재개되고, 이 행사가 물꼬가 되어 영상편지를 매개로 통일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김솔이(24) 프로듀서



최대한 예의 갖추고 촬영… 이산가족 죽음 소식 들으면 마음 아파

안타까운 것은 이산가족들이 비극적 결말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찾는 가족분이 사망했다는 말을 들을 때죠. 80대의 한 할머님은 흥남철수 때 이모부가 임신한 부인과 자녀들은 흥남에 남기고 자신만 배에 태워 남쪽으로 보냈답니다. 나중에 수소문해보니, 이모부와 가족들은 그곳을 빠져나오다 인민군에 붙들려 모두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당시 할머님과 떨어졌던 이모부의 자녀들, 특히 사촌언니가 살아 있을까 궁금해 영상편지를 찍는 내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럴 때 가장 마음이 아프죠. 보통 한 시간가량 촬영하지만, 안타까운 소식을 전할 때는 30분 이상 숨도 쉬지 않고 속사포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차마 말을 끊을 수가 없어요. 편지를 읽다가 글씨가 보이지 않으니 울먹이기도 하시고요. 저희 촬영팀은 가급적 어르신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강원 횡성을 방문했을 때는 할머님이 밤을 삶아놓고 기다리시기에 한 시간 동안 같이 밤을 까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고 나서 촬영을 시작하니 훨씬 더 좋은 영상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송슬기(21) 프로듀서

영상편지에 등장한 손주들 모습 보고 희망 느껴

통일부가 남북 이산가족의 화상상봉을 위해 내년에 85억 원의 예산을 증액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영상편지 제작에도 더욱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비전마스타가 제작한 영상편지들을 보면, 이미 상봉했던 북의 가족이라도 보고 나니 더 그립다고 한 영상편지도 있고, 남쪽에서 가족들의 결혼식, 행사, 행복한 모습을 사진과 함께 전하거나 남쪽 가족들을 소개하는 내용도 다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상편지에 수줍게 등장하는 어린 손주, 증손주들은 언젠가 세대를 넘어 이어질 만남을 약속하는 듯해서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DSLR(일안반사식) 카메라 한 대를 들고 산동네를 올라 인터뷰하거나 병원에서 촬영한 적도 있습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우리 세대는 힘들더라도 아가씨 세대에선 남과 북이 서로 만날 수 있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격동의 현대사를 교과서에서만 보고 자란 저희 세대는 이분들을 만나면서 생생한 역사공부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살아 있는 우리 현대사의 한 조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경(24) 프로듀서

Weekly
공감
No.484
2018.12.24~12.30



08


20



56

01 **살며 생각하며**
빙점(氷點)

02 **내 인생의 한 컷**
내게 가장 마술 같았던 하루

04 **찾아가는 신문고**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하는
비전마스타 이산가족영상제작팀

포커스

08 **2019 경제정책방향**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16대 과제
투자 활성화, 공공 인프라 늘려 경제 활력 제고

12 **자영업자 대책**
자영업자와 함께 만든 '자영업 성장·혁신 대책'
전국 상권 30곳, 자영업 혁신 거점으로 집중 육성

14 **주거대책**
3기 신도시 남양주·하남·과천·인천 계양 선정
서울 도심까지 30분… GTX 등 교통망 개선

16 **국민연금 개편안**
다층연금체계로 소득보장 범위 확장
연금 지급 국가 보장, '출산크레딧' 확대

특집

20 **아듀! 2018**

22 part 01 _ 2019 내 삶을 바꿀 정책들
한반도 평화의 시대 열린다
에너지 자급자족 시대 열리다
신혼부부, "2세 계획 세울래요"

28 part 02 _ 2019 내일을 여는 사람들
| **김선형** 소방사 | **김창규** KTX 기장 | **송범준** 순경 |

32 **정훈이 만화** | 이슈를 품은 역사 이야기

2019 정부 업무보고 새로운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나라

34 **2019년 새해, 정부는 이렇게 일합니다**

교육부 교육 신뢰 회복에 집중 2019년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고용안전망 강화, 직장 내 갑질·채용비리 근절
산업통상자원부 14개 지역 활력 회복 프로젝트 추진 2022년까지 2만 6000개 일자리 만든다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2차 대상지 2곳 추가 선정… 창업보육생 100명 선발
환경부 미세먼지 배출량 4만 668톤 감축 노후 지하시설물 관리 강화키로
국방부 '9·19 군사합의' 적극적으로 이행 첨단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양육비 월 20만 원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제도 개선

내 삶을 바꾸는 정책

42 **혁신성장**
문재인 대통령 방문한 그 스마트공장 '삼천산업' 가보니
스마트하게… 생산성↑ 일자리↑

46 **청년정책**
친절한 고민상담소

50 **방송발전기본계획**
건강한 제작환경 창의적 콘텐츠 키운다

52 **최저임금**
2019년 시간급 최저임금 8350원

54 **이 주의 정책 뉴스**

56 **인터뷰**
시각장애인과 시시콜콜 세상사 공유

58 **연재** | 모두의 철학 ㉕
'조화와 갈등'의 '갈등과 조화'

60 **연재** | 이정모의 '거의 모든 것의 과학' ⑬
고래는 고기보다 똥이 좋죠

62 **문화마당**

64 **참여공감**





이미지 ⓒ영상

Cover Story
올해 10월 임용돼 본격적인 소방관의 길을 걷고 있는 김선형 소방사는 아버지와 남동생 역시 소방관이다. 몇 번 시험에 떨어져 낙심해 있을 때마다 아버지의 "네가 최고다"라는 달콤한 격려에 마음을 다잡고 다시 도전하곤 했다. 2019년 김 소방사의 목표는 "체력과 기술을 연마해 멋진 소방관이 되는 것"이다.

발행일 2018. 12. 24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도종환
제작기획 국민소통실 콘텐츠기획과
044-203-3014
제작협력 (주)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팩컴코리아
구독문의 및 주소변경(수신자부담)
080-906-4480

스캔하면
공감 블로그를
만납니다

OPEN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위클리 공감〉 저작물은 '공공누리(www.kogl.or.kr)'의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제도입니다.

- 〈위클리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16대 과제
투자 활성화, 공공 인프라 늘려 경제 활력 제고

선수현 | 위클리 공감 기자

2019년 경제정책의 중심은 ‘활력’이다. 정부는 내년도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에 6조 원을 투입한다. 도서관·체육관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8조 6000억 원을 지원한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2월 17일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2019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예산을 가장 크게 늘려 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민생, 복지, 삶의 질 향상과 같은 포용적 예산을 확대했다”면서 “내년에는 우리 정부의 경제 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하며 속도와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당부했다.

2019년 경제성장률 2.6~2.7%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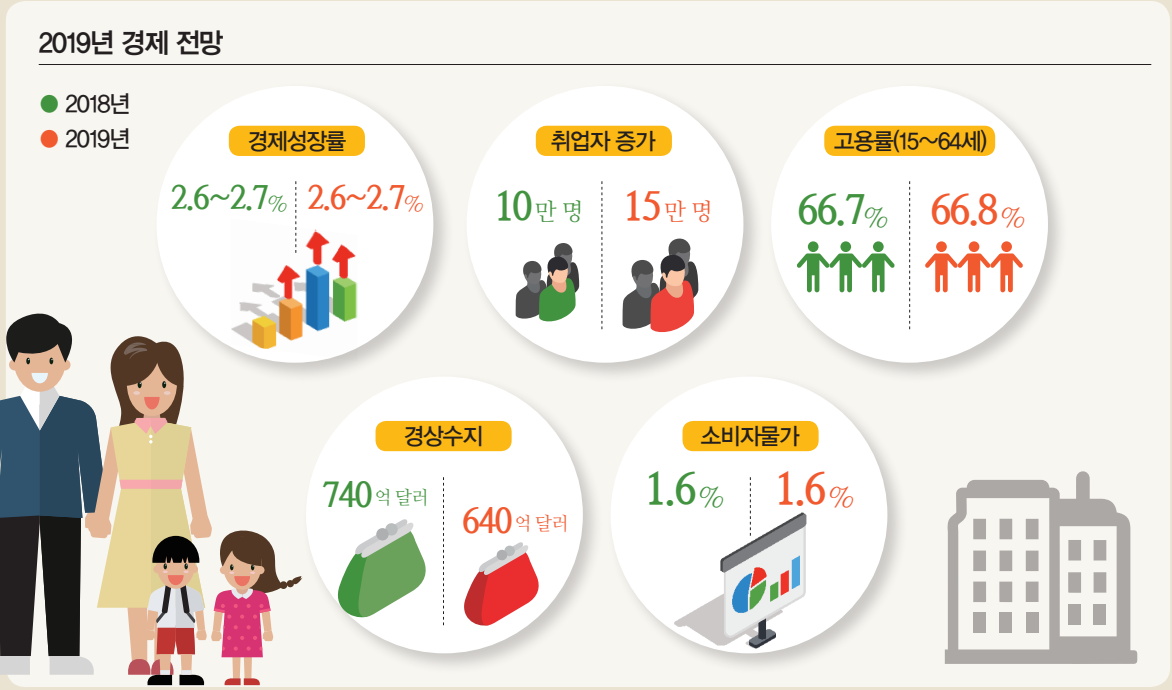
문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기회가 많아져 창업 붐이 일어나야 한다”며 “소비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여건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또 “카드수수료 인하와 임차권 보호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한다”며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어르신, 장애인, 여성에 대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일자리에서 소외된 계층의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당부했다.

최근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와 관련 종합점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시행해온 규정과 정책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공공기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사업성과보다 공공성과 안전을 더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대책을 마련했는데 왜 현장에서 그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개선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2019년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을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진단했으나 적어도 올해 수준 이상으로 경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을 설정했다. 2019년 경제성장률은 올해와 유사한 수준인 2.6~2.7%로 추정했다.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해도 투자 활성화·복지 지출 확대 등의 정책 효과가 성장세를 보완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고용률은 2018년 66.7%보다 소폭 개선된 66.8%, 취업자 증가는 15만 명으로 예상했다. 유가는 하락세에 있으나 농축수산물, 서비스요금 오름폭이 소폭 확대되어 물가는 올해와 유사한 수준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청와대



인 1.6% 상승을 전망했다. 반면 경상수지 흑자폭은 640억 달러로 예측했다. 세계 교역 둔화, 통상 마찰 영향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단가 상승폭 축소 등에 따라 수출 3.1%, 수입 4.2% 증가할 것으로 봤다.

수출기업 12조 원 지원해 경쟁력 강화

정부는 상황을 이와 같이 진단하고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16대 과제를 설정했다. 전방위적 경제 활력 제고, 경제 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 등 4대 부문에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시장경제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실현해나가는 전략이다. 궁극적 목표는 사람중심의 경제 패러다임 정착이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시한 첫 과제는 기업투자 활성화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자동차 주행시험로, 서울 창동 K팝 공연장 조성 등에 6조 원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현행 도로·철도 등 53종 시설에 한했던 민자사업을 모든 공공시설로 확대 허용하고 항만 개발, 도심지 하수처리장 현대화, 대도시권 교통사업 등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16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기업의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 등 지원을 강화한다. 군산, 거제, 통영, 고성 등 위기지역 내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해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에 들어간다. 중소기업은 현행 투자세액공제율 3%에서 10%를, 중견기업은 현행 1~2%에서 5%를 적용한다.

지역·국민 체감형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 역시 정부가 중점을 두는 과제다. 우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지역 전략 산업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을 면제하는 지원 사업을 확정한 후 조기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문화·체육시설을 생활 SOC 복합시설로 추진할 때는 50%까지 국고를 보조한다. 지역별 생활 SOC 복합시설 수급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 전통시장 주차장, 어촌 뉴딜 300사업 등이 포함된 '생활 SOC 중장기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공기업·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토목·건설 사업은 조기 착공한다. 이에 따라 세종~안성고속도로, 양평~이천고속도로 등이 2019년 중 조기 착공에 들어간다. 또한 구 부산원예시험장, 대전교도소 등을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해 사업계획을 승인한다.

정부는 창업-성장-회수-재도전 지원을 강화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

다. 혁신창업펀드의 창업 초기 분야 비중을 확대하고 낙후지역 등에 창업하는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감면에 2년간 50% 추가 감면한다. 현재 부동산, 매출채권, 동산 등 담보별로 실행하는 금융권 대출에 일괄담보제를 도입한다. 또 스타트파크 조성, 기술금융 확대 등을 통해 성장을 지원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시에는 법인세 감면을 2021년 말까지 연장하는 회수 지원과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할 수 있게 융자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등 재도전 지원을 강화한다.

소비·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다양화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6개월 연장하고 노후 경유차를 폐차 후 새 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다. 인천, 경기, 강원 등 DMZ 주변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등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한다. 서울 등에 시내 면세점을 추가 설치하고 인도 단체관광객의 단체비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는 방안도 수립했다.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는 총 6조 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2018년 205조 원에서 2019년 217조 원으로 12조 원 확대한다. 수출 다변화를 위해 신남방·신북방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은 M&A, 생산기지·유통망 구축 등 최대 5조 원까지 지원한다.

거시경제 관리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다. 정책성과를 조기에 거둘 수 있도록 일자리 예산을 70% 조기 배정하고, 2018년 초과세수 9조 원 수준의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분 전액을 오는 4월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에 지급한다. 월 상환액이 일정하거나 금리 상승폭이 제한되는 주택담보대출 등을 신규 제공해서 취약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을 위한 햇살론 금융지원을 7조 원 공급하는 등 가계 부문 대책이 마련됐다. P-CBO(회사채 담보부증권) 공급 규모를 6000억 원 확대해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 수도권 주택 26만 5000호를 공급하는 등 주택시장 관리에도 집중한다.

스마트공장 2019년 4000개 확대

한편 경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을 위해 규제혁신의 물꼬를 트고 그동안 지체된 산업·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성과를 도출한다. 핵심규제를 혁신하는 방안도 눈길을 끈다.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범위·기준을 마련해 의료행위 구분을 명확히 하고, 세종·부산 등 스마트시티 시범지구에 대여·반납 구역에 제한이 없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지자체가 보유한 유휴 공간은 공유 공간으로 개방한다.

주력산업 경쟁력·생산성 제고를 위해 '제조업 혁신전략'을 추진하고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4개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기·자율차 등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 프로젝트와 수소연료 선박,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R&D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 활력법 일몰을 2024년 8월로 연장해 기업의 부실 발생 전 선제적으로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았다.

신산업·신기술 창출 지원과 관련 집중 지원이 이뤄진다. 스마트공장을 2019년 4000개, 2022년까지 3만 개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대출을 늘리고 보증비율을 95%로 확대할 계획이다. 핀테크 영역에서는 비금융기관이 국내에 제공하고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의 해외 이용을 허용한다. AI·IoT·로봇 등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데도 투자 지원한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유망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4대 분야의 혁신전략을 우선 수립한다. 지속가능한 고용 모델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임금체계를 연공급 위주에서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형 일자리와 같이 지역 노·사·민·정 합의에 기반을 둔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는 데도 힘쓴다.

정부가 가계소득 기반, 사회안전망 등 경제·사회의 포용성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되 속도가 빨랐다고 지적받은 일부 정책은 보완에 나섰다. 우선 집중 대상은 서민·자영업자다. 결제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낮춘 소상공인 페이(제로페이)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 카드수수료 우대구간을 연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채무 조정과 재창업 지원을 확대 적용한다.

동시에 취약계층에는 일자리·소득 지원을 보완한다. 청년을 위해 추가고용장려금·내일채움공제 등의 지원 대상을 각각 9만 명에서 18만 8000명, 11만 명에서 21만 명으로 두 배가량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하면 2년간

인건비의 30%를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어르신을 위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해 노인일자리 10만 개를 확충한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폭이 10.9%로 결정됨에 따라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자영업자 추가지원 대책'을 2월 중 발표한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통해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2020년 최저임금은 개편 상황을 반영해 결정할 예정이다.

수수료 부담 0%대 '제로페이' 본격 개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반투자 역시 늘어난다. 월세세액공제에 주택가액 기준을 추가해 가격대가 낮은 비수도권 주택 거주자의 지원을 확대하고 MRI·초음파, 응급·중환자실 비급여 항목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범위도 넓힌다. 전기버스 보급 확대와 미세먼지 저감 도로청소차 지원도 이뤄진다.

근로장려금(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 사회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 단독가구 기준 150만 원, 홑벌이 260만 원, 맞벌이 300만 원까지 최대 지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빈곤층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기반을 구축한다.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원하는 아동수당은 20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 전원으로 확대한다.

우리 사회의 공정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2019년에도 지속된다.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화하고 가맹점에 대한 대리점 본사의 악의적 보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게 '협업 선도기업'을 2022년까지 200개 지정하고 협업 전문회사를 도입한다.

미래에 대비한 투자와 준비도 선제적으로 이뤄진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R&D 지원체계를 기술별 특성에 맞게 개편하고 모태펀드 내 기술사업화 촉진펀드 300억 원을 조성해 대학·연구소 등에서 출자·이전받은 기술을 지원한다.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은 2018년 47조 원에서 2019년 53조 원으로 확대한다. 2022년까지 교통·난방 등 수소기반 시범도시 3개소를 조성하는 방향도 설정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해외 우수 인재가 국내에 복귀하면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하고, 직장어린이집 확대,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등의 과제도 진행할 방침이다.

2019년 경제정책방향

전방위적 경제 활력 제고

투자 활력 제고 :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투자 1조 6000억 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3조 7000억 원, K팝 공연장 5000억 원 등 투입, 국민 체감형 공공인프라 확대 위해 생활 SOC 예산 8조 6000억 원

창업–성장–회수–재도전 지원 : 낙후지역 등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3년간 100%+2년간 50%), 일괄담보제 도입

소비 및 관광 활성화 :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인도 단체관광객 단체비자 제도 도입, DMZ 주변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수출 경쟁력 강화 :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의 수출 금융 지원 12조 원 확대, 신남방·신북방 시장 진출 시 최대 5조 원 지원

거시경제 안정 관리 : 초과세수 9조 원 4월 지자체·지방교육청에 지급, 햇살론 7조 원 지원

경제 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

핵심 규제 혁신 : 의료 비대면 모니터링,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 지자체 유휴공간 개방 등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기업활력법 일몰 연장

신산업·신기술 지원 강화 : 스마트공장·미래차·핀테크·바이오헬스

서비스 산업 육성 : 관광·보건·콘텐츠·물류

지속가능한 고용 모델 구축 : 임금체계를 연공급에서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 우선 추진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서민자영업자 지원 강화 : 제로페이 개시, 카드수수료 우대 연매출 30억 원

취약계층 일자리·소득 지원 : 청년 추가고용장려금·내일채움공제 2배 확대, 노인일자리 10만 개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반투자 확대 : 월세세액공제 대상 확대, 비급여 건강보험 확대, 전기버스 보급

사회안전망 강화 : EITC 지원대상·지급액 확대, 아동수당 전체 만 7세 미만

공공경제 질서 확립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협업전문회사 도입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

4차 산업혁명 대비 : 혁신성장 분야 정책금융 지원 47조 원에서 53조 원으로 확대, 수소기반 시범도시 조성

저출산·고령화 대응, 남북경협 준비 본격화, 중장기 비전과 전략 제시

자료 | 기획재정부

자영업자와 함께 만든 '자영업 성장·혁신 대책' 전국 상권 30곳, 자영업 혁신 거점으로 집중 육성

이정현 | 위클리 공감 기자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2022년까지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자영업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고, 이들의 매출은 늘리고 비용 부담은 낮추는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관계자들과 함께 12월 2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대책은 취업자의 25% 수준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를 처음으로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확고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영업자는 '자기고용노동자'로 분류된다.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해 정부는 자영업자들을 독립적 정책 영역으로 규정해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자영업자와 심층토론으로 대책 마련

자영업자들과 함께 자영업 대책을 마련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대책 수립 단계부터 자영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자영업 단체 및 정부로 구성된 '현장 소통 TF'를 운영하고, 다섯 차례의 심층토론을 거쳐 대책 안을 만들었다.

우선 자영업이 성장할 수 있는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됐다. 2022년까지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 30곳을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지역문화가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복합공간(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으로 조성한다. 전통시장의 주차장 보급률을 100%로 높여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복합청년몰·시설의 현대화 등 관련 사업을 연계해 상권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역량이 강화되도록 했다.

더불어 스마트 제조혁신, 공동 작업, 전시 판매 등을 위해 '소공인 복합지원 센터' 10곳을 설치한다. 특례보증을 신설해서 센터를 돕는다. 백년가게, 명문소공인 등 혁신형 소상공인 1만 5000명을 발굴·육성해 성공사례를 모델화하고 자금·컨설팅·마케팅 등을 연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자동화 설비 구축에 정책자금 2000억 원을 우대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기업의 매출은 올라가고, 비용은 줄여주는 정책도 추진된다. 2019년 지역(고향)사랑상품권 발행을 올해의 5배 이상인 2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도 2022년까지 총 10조 원을 발행한다. 제로페이의 본격적 시행으로 0%대 수수료율을 현실화하고, 상품권 할인 금액 등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충전해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하는 (가칭) '국민포인트제'를 도입한다.

창업을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창업 성공을 위해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설령 사업이 잘 되지 않을 경우 폐업과 재기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6곳은 전문적으로 실습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해, 창작·네트워킹 공간을 제공하는 복합형 교육시설로 확대 개편한다.

사업에 실패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재창업이나 재기를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지역신보가 보유한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매각·소각)하고, 개인의 연체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한다. 폐업 지원 전담창구를 신설(60개 소상공인지원센터)해 폐업신고, 사업정리 등 폐업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원활한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한 재기교육을 사회복지, 뿌리산업, 귀농·귀어 등 유망 분야로 내실화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자영업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자격을 완화한다.

골목상권을 살려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도록 한다.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환산보증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철거·재건축 시 우선입주요구권을 인정하고, 나아가 퇴거보상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진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하위법령을 개정해 상권영향평가서의 내실화를



서울시 제로페이가 시행된 12월 2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의 한 커피전문점을 방문한 시민이 제로페이를 이용해 결제하고 있다. | 뉴시스

꾀한다.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강화해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잠식을 막는다.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출점 기준 이행 여부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약금 감면 사유를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해 소상공인을 돕는다. 가맹본부, 가맹점주 간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를 육성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상생협력 요소를 반영하는 등 상생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자영업자 안전망을 확대하고 복지도 강화하는 대책 방안을 마련했다. 관계부처(중기부, 복지부, 고용부)가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해 1인 자영업자에 대한 4대 보험 지원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미 시행 중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가입 조건의 완화와 지원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022년까지 180만 명으로 확대하고, 교육 및 취업 지원기능을 보강한다. 자영업 밀집지역 내 어린이집, 편의 시설 등 복지공간을 조성한다. 또 자영업자 삶의 질(워라밸) 지수를 개발해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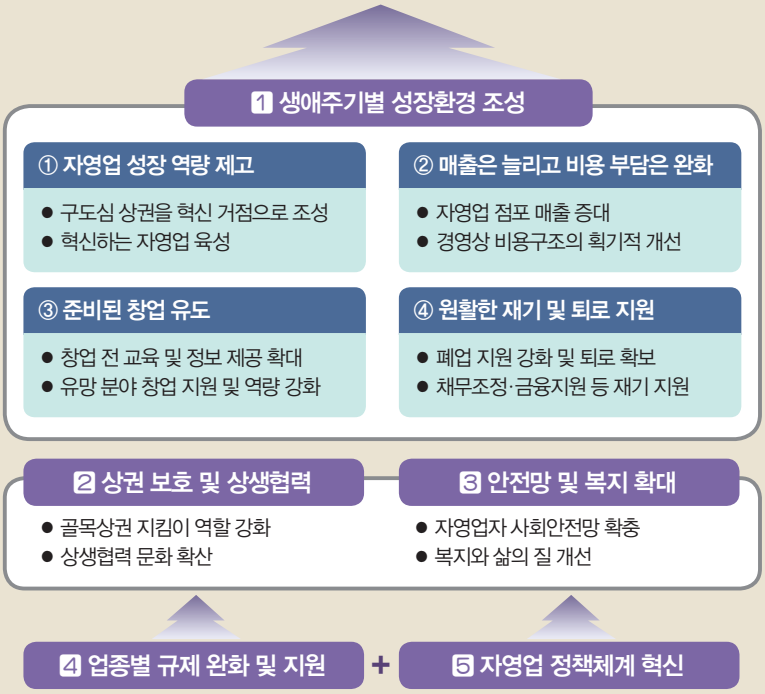
'창업·성장·재기' 선순환 생태계 기반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18조 원 규모의 지역상품권(8조 원) 및 온누리상품권(10조 원)을 발행한다. 상품권 발행으로 자영업 점포의 매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자영업자의 자금 운영을 돕는다. 지역신보 보증을 매년 1조 5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신기보의 자영업자 전용보증(6000억 원)을 신설한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확대해 2022년까지 17조 원 규모의 저리자금이 공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정책적 측면에서도 이번 대책이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공개된 대책에는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 자영업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전문연구소 설립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정부가 자영업에 대한 독립적 정책을 세우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G

성장·혁신하는 자영업, 잘사는 자영업자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3기 신도시 남양주·하남·과천·인천 계양 선정
서울 도심까지 30분… GTX 등 교통망 개선

선수현 | 위클리 공감 기자

정부가 12월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3기 대규모 신규 택지로 선정된 지역은 경기 남양주, 하남, 과천과 인천 계양구다. 서울 등지에 공급할 중소규모 택지 37곳에 대한 계획도 함께 나왔다. 이들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은 총 15만 5000호다.

3기 신도시 지역은 서울 경계에서 2km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다.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선정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하다.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은 기존의 두 배 이상이 투입된다.

또 이 지역은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확보해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를 표방한다. 자족 기능을 위한 벤처기업 시설,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도시형 공장 등이 입지할 예정이다. 임대료가 시세의 20~60%인 기업지원허브를 조성해 스타트업을 육성할 계획도 갖고 있다.

중소 택지 37곳 포함 총 15만 5000호 공급

3기 신도시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은 총 12만 2000호다. 이 지역 유치원은 100% 국공립으로 설립한다. 개발 이익은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등 생활 SOC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공원은 기준 대비 1.5배 수준, 간선급행버스체계(BRT)는 수소버스로 공급한다.

경기 남양주 진접·진건읍, 양정동 일원에 위치하는 왕숙지구는 1134만㎡ 면적에 6만 6000호를 공급한다. 왕숙 1은 경제중심도시, 왕숙 2는 문화예술 중심도시로 조성하며 규모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네 배 수준이다. GTX-B(인천 송도~남양주 마석)역을 신설하면 청량리역까지 10분, 서울역까지 15분이 소요된다. 이곳에는 도시첨단산단, 기업지원허브 등을 조성해 일자리 도시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면적 649만㎡의 하남 교산지구는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등지로 3만 2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서울 3호선을 연장하면 수서역은 20분, 잠실역은 30분이 걸리며, 서울~양평고속도로 신설로 서울 접근 시간을 평균 15분 단축할 수 있다. 이곳에는 판교 제1테크노밸리 면적의 1.4배의 자족 용지를 조성해 기업지원허브, 청년창업주택 등을 배치할 예정이다.

인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대 약 335만㎡ 규모에는 1만 7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인천 S-BRT와 주변 역사를 연결하면 인천~여의도가 25분 안에 연결된다.

과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등지 155만㎡에는 주택 7000호를 공급한다. 과천대로~헌릉로 연결도로 신설, 과천~우면산 도로 지하화 등으로 도로 사정이 개선된다. 이곳에는 복합쇼핑테마파크, 순환테마파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외 중소규모 택지 37곳에는 3만 3000호의 주택이 들어선다. 국공유지, 유휴 군부지,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등을 활용해서다. 부천 역곡, 고양 탄현, 성남 낙생, 안양 매곡은 재원 부족 등의 이유로 방치된 공원부지와 연접부지를 활용해 조성한다.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는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에 주택 1만 24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도심 내 이전 예정인 군부대 부지, 노후 군 관사 등을 활용한 군 유휴 부지를 개발해 주택 2400호를 공급한다. 이전 예정인 서울 강서구 군 부지와 대방·공릉·강서 등의 군 아파트가 대상이다.

노량진환경지원센터, 석관동민방위센터, 서울의료원, 동부도로사업소, 수색역, 금천구청역 등 도심 내 국공유지 17곳에는 공공주택 1만 4600호를 공급한다. 노후화된 저층 공공시설 재건축을 통해 공공주택과 함께 건설하는 복합개발로 500호가 공급된다. 양녕·청석·한누리 주차장, 신촌동·천호3동 주민센터, 동북권 혁신센터



등이 이에 해당한다.

3기 신도시 조성과 함께 이 일대 광역교통망도 개선된다. GTX-A 노선(파주 운정~화성 동탄)과 GTX-C 노선(양주 덕정~경기 수원), 신안산선(안산·시흥~여의도)은 조기 착공에 들어간다. GTX-B, 신분당선(수원 광교~호매실) 연장, 계양~강화고속도로 건설 등도 신속하게 추진된다.

GTX 등 광역교통망 개선 추진

제1외곽순환고속도로의 상습 정체구간을 정비해 서창~김포, 판교~퇴계원 병목구간을 복층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위례트램(남부), 7호선(북부), 3호선(서북부) 연장 등을 통해 광역인프라 취약 지역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M버스 공급과 전용 S-BRT, 2층 버스 등도 도입한다.

한편 정부는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과 관련, 경기·인천 등 총 7곳의 공공택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남양주 왕숙(29㎢), 하남 교산(18.1㎢), 과천 과천(9.3㎢), 부천 까치울(3.1㎢), 성남 낙생(2.7㎢), 고양 탄현(0.8㎢), 인천 계양(8.4㎢) 등이다.

정부는 지난 9월 21일 1차로 3만 5000호 규모의 공공택지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해당 지역 17.9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지가 상승과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어 이번 2차 공급대책 발표와 함께 7개 사업지구와 인근 71.4㎢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개발예정지역과 GTX 확충 지역 일대의 집값, 지가 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투기 방지에 나선다. 투기성 거래, 난개발 등의 조짐이 보이면 관계기관 합동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G

다층 연금체계로 소득보장 범위 확장
연금 지급 국가 보장, '출산크레딧' 확대

장가현 | 위클리공감 기자

보건복지부는 12월 14일 국민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안정성 조화에 중점을 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은 8월에 발표한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결과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기존 개혁이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가 골자였다면 4차 계획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로 소득보장 범위가 확장됐다. 최근 들어 기초연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퇴직연금이나 주택·농지연금도 노후소득보장의 한 틀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를 두텁게 보장하려면 국민연금제도뿐 아니라 다양한 연금제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이번 계획의 또 다른 특징은 국민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성의 균형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없애고 급여를 내실화해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다양하게 꾸렸다. 그리고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수익성을 제고해 재정을 안정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정부 주도의 일방적 연금개혁이 아니라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는 물론 지역별·연령별 국민의 목소리를 담는 데 주력했다. 9월부터 10월까지 노동계, 사용자, 노인층, 청년층, 전문가 등 주요 집단별 간담회(17번), 지역별 토론회(2500명), 온라인 의견수렴(2700여 건), 전화 설문(2000명) 방식으로 급여와 가입제도 개선, 경제·인구·사회정책 노력 등 국민이 공적연금 제도에 바라는 개선사항을 적극 수렴했다.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화 설문 결과 응답자의 63.4%가 현재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답했고, 부담되지 않는다고 말한 응답자는 34.6%였다. 현 제도를 유지하길 원하는 의견은 47%,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은 27.7%, 덜 내고 덜 받는 방안은 19.8%로 나타났다.

국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급여액을 높이기 위해 우선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급여와 가입제도 개선, 노후소득보장, 재정안정을 위한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 국민연금수령액), 보험료율 조정 방안은 의견이 갈렸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의견, 재정안정성 강화를 주장하는 의견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적연금이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저노후생활보장 목표를 설정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국민 노후보장 패널 7차 부가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기준 은퇴 후 최소생활비는 약 95만~108만 원이고 적정생활비는 약 137만~154만 원이다. 이를 바탕으로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수용성을 감안해 조정범위를 정했다.

국민연금 4개 개편방안 마련

공적연금의 정책목표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범위를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 원 범위에서 정책대안을 고려해 ▲현행 유지 방안 ▲기초연금 강화 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①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② 등 4개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유지' 방안은 현행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체계를 유지하고 실질소득 대체율을 제고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를 그대로 유지하며 기초연금을 2021년에 3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은 현재 45%에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지게 설계됐다. 그러면 월

국민연금 제도 개편방안

		현행 유지 방안	기초연금 강화 방안	현행 유지 방안	현행 유지 방안
		소득대체율 40% 유지	소득대체율 40% 유지 + 기초연금 40만원	소득대체율 45%	소득대체율 50%
기본 모형 (소득대체율)		국민 40% + 기초 12%** (52%)	국민 40% + 기초 15%* (55%)	국민 45% + 기초 12% (57%)	국민 50% + 기초 12% (6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현행 유지 ('28년까지 40%로 인하)	현행 유지 ('28년까지 40%로 인하)	국민 45% + 기초 12%	국민 50% + 기초 12%
국민연금	보험료율	현행 유지 (보험료율 : 9%)	현행 유지 (보험료율 : 9%)	'31년 12% ('21년부터 5년마다 1%p씩 인상)	'36년 13% ('21년부터 5년마다 1%p씩 인상)
기초연금		'21년 30만원	'21년 30만원 '22년 이후 40만원	'21년 30만원	'21년 30만원

자료 | 보건복지부

250만 원을 버는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 받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실질급여액'은 86만 7000원이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현행 제도를 유지하길 바라고 있었다.

'기초연금 강화 방안'은 현행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체계를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인상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기초연금은 2021년 30만 원, 2022년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기초연금 강화 방안이 시행될 경우 실질급여액은 평균소득자 기준 101만 7000원이 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강화 방안이 채택될 경우 기초연금이 인상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 예산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①',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②'는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대폭 조정한다. 일명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이다.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①은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2021년까지 45%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2021년부터 5년마다 1%p씩 인상해 2031년에 12%를 만드는 것이다. 이 경우 평균소득자는 기초연금 30만 원을 더해 월 91만 9000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②'는 소득보장에 더 무게를 뒀다.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고 보험료율은 5년마다 1%p씩 올려 2036년에 13%까지 인상한다. 기초연금 30만 원까지 더하면 평균소득자가 받는 실질급여액은 97만 1000원이다. 복지부는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①, ②가 채택될 경우 제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해 재정안정성을 강화할 것을 추천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강화 방안과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①, ②가 채택될 경우 실질급여액은 약 100만 원 수준으로 보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①, ②가 채택되면 향후 약 25년간은 기금적립금이 계속 증가해 현재보다 기금소진년도를 연장할 수 있다.

이 네 가지 방안을 적용했을 때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은 현행 유지안과 기초연금 강화안은 2057년, 노후소득보장 강화안 ①은 2063년, 노후소득보장 강화안 ②는 2062년이다.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국민연금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 등으로 2042년에 국민연금이 적자가 돼 2057년이면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정했다. 네 가지 방안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국민의 의견을 종합해 공통적으로 원하는 의견은 그대로 추진한다. 먼저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법'에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한다.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을 위한 명문화는 대국민 설문 결과 응답자의 91.7%가 찬성했다. 국가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에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SNS 등을 적극 활용해 국민이 국민연금 제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정기적으로 지역별 토론회와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열어 연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기금의 투자내역과 자산내역을 공개하고 각 위원회가 회의마다 작성한 회의록을 공개해 투명성을 높인다.

지급 보장 명문화로 신뢰도 높여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된다. 사업이 진행되면 첫해에만 약 350만여 명의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을 받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고 실질소득 대체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실업크레딧 인정소득금액 69만 원인 지역가입자는 산정된 보험료 6만 2100원 중 절반인 3만 1050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받는다. 이 경우 추후 연금수급액이 월 2만 4801원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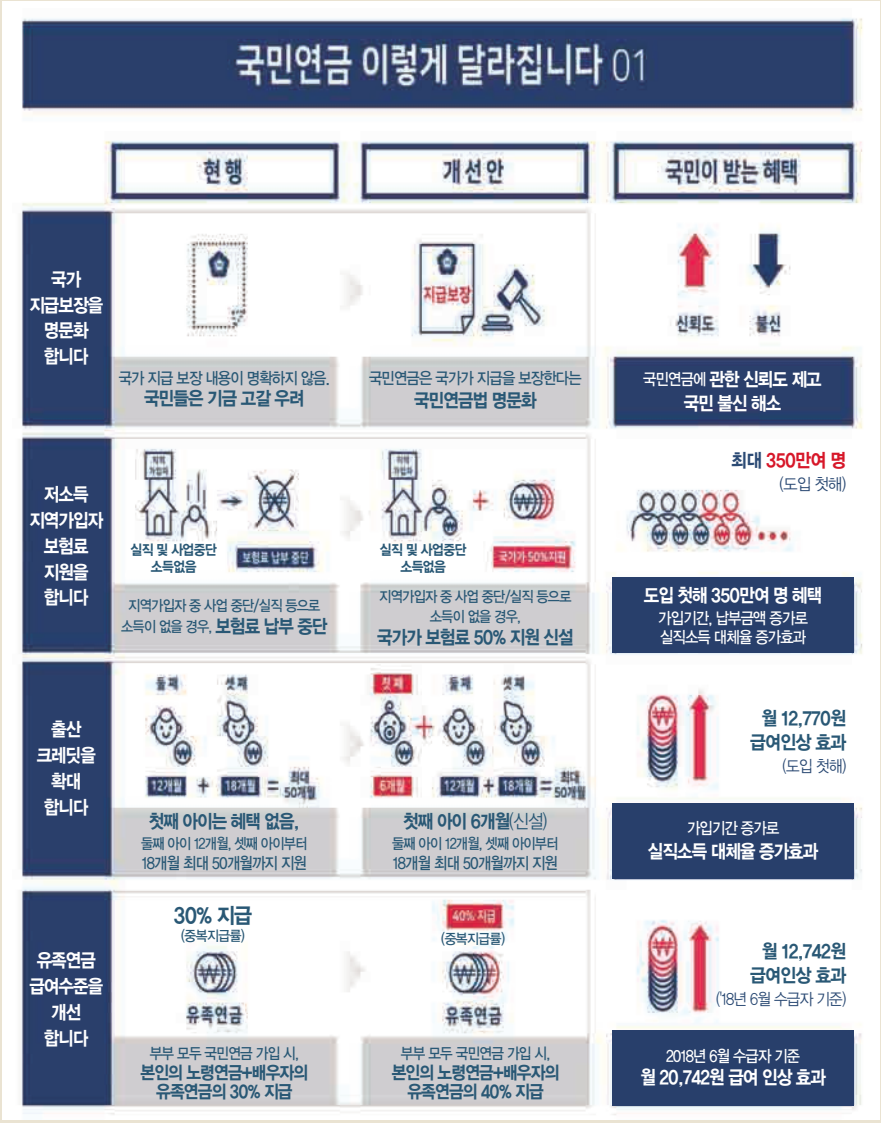
사업장 가입자와 농어민 보험료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근로자 소득기준을 190만 원에서 210만 원까지 인상한다. 이를 위해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예산은 2019년 1조 1551억 원으로 2018년 대비 4000억 원이 증가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기준소득월액은 91만 원에서 97만 원으로 올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이 늘어난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는 '출산크레딧' 제도가 확대된다. 현행 둘째 아이 12개월, 셋째 아이 18개월, 상한 50개월인 기준에 첫째 아이 6개월을 포함한다. 첫째 출산 시 6개월간 출산크레딧을 지급하면 2018년 수급기준 월 연금액 1만 2770원이 인상되는 효과가 생긴다.

배우자 사망 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은 중복지급률을 40%로 인상한다. 분할연금의 분할 방식을 노령연금 수급 시점에서 이혼 시점 소득이력 분할로 변경하고 최저혼인기간도 5년에서 1년으로 줄여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한다.

결혼 후 25년간 전업주부로 살던 A씨가 55세에 남편과 이혼하고 수급연령인 62세가 되기 전에 전남편이 사망한다면 현 제도에서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제도가 개선되면 이혼 시점에 바로 소득이력을 분할 받아 본인의 가입이력을 늘릴 수 있어 향후 A씨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현재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에만 지급하던 사망일시금은 수급자가 연금 수급 개시 후 조기 사망할 경우에도 지급한다. 사망



자료 | 보건복지부

시점과 관계없이 최소금액인 본인소득의 4배가 보장된다. 현재 월 급여액이 50만 원이고 본인소득이 227만 원인 수급자가 수급 후 1개월 내 사망하고 유족이 없는 경우 수급권은 바로 사라진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면 사망일시금은 소득액의 4배인 908만 원에서 기수급액 50만 원을 뺀 나머지 858만 원을 사망일시금 청구자격자에게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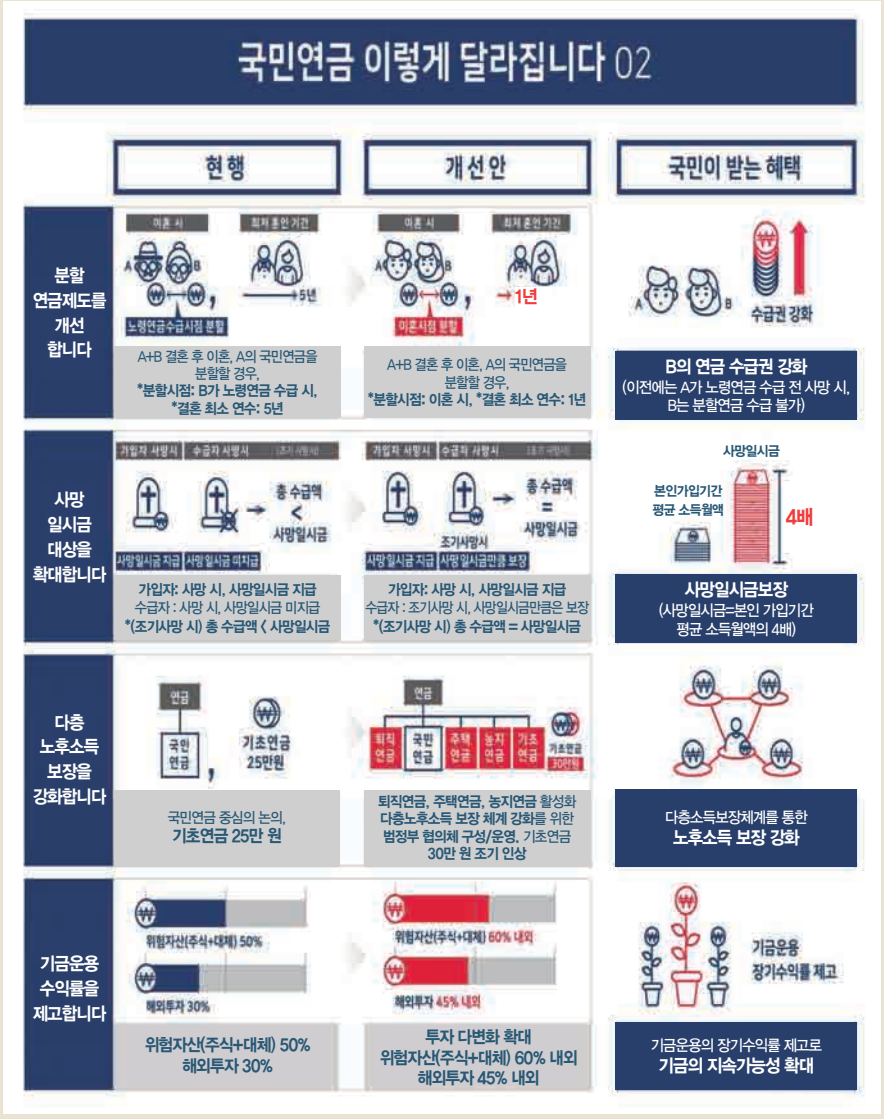
기초연금은 30만 원으로 올려 단계적으로 지급한다. 2019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 노인,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노인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 전체에게 30만 원을 지급한다.

출산크레딧,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상향

중소기업은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고 퇴직금제도를 폐지해 퇴직연금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퇴직금제도는 적용 대상을 현재보다 더 확대한다. 주택연금은 일시인출 한도를 늘린다. 요양원 입소, 자녀 봉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제 거주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택연금이 해지되지 않도록 실거주요건은 완화한다. 농지연금은 제도의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공적연금 제도를 보완한다. 정부는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해 연금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조정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기금이 장기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재정추계상 수익률(평균 4.5%)보다 높은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해외투자와 위험자산 투자를 확대하는 등 투자를 다변화해 기금 수익성을 제고한다. 성과가 저조한 국내주식 위탁펀드는 회수해 재배분하고 대체투자 집행을 개선해 투자 자산별로 수익률을 높인다. 기금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기업에는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등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행동원칙을 규정한 자율규범)를 충실히 이행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구조도 개선한다. 기금위원회 위원 중 일부는 금융·경제·자산운용·연금제도 등 3년 이상 경력자를 위촉해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해 기금위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사무기구를 설치한다. 당연직 정부위원은 6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근로자·사용자 위원은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등 위원 수를 조정해 연금가입자 대표의 역할이 강화된다. 또 국민연금 재정은 출산율과 경제 낙관변수 조합에 따라 기금 소진 시점이 1~2년 연장되는 효과가 있어 출산율 제고, 경제 활성화 등의 정책적 노력도 다각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G









아듀! 2018

이정현 | 위클리 공감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진 세 차례 정상회담이 세계의 눈을 사로잡았다. 올해 초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대화의 물꼬가 열렸고, 4월 27일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집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이 이뤄졌다. 4·27 판문점 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 내용을 담아 특히 의미가 크다. 5월 26일에는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2차 정상회담이 이뤄졌다.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김 위원장이 먼저 문 대통령에게 요청해 이뤄진 정상회담이었다. 9월 18~20일 평양에서 이뤄진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의 동창리 엔진시험장 영구폐기 등 비핵화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2월 9~25일 17일 동안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 일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평창동계올림픽은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열린 두 번째 올림픽이다. 국제종합대회에서 11년 만이자 통산 열 번째로 개회식 공동 입장을 성사시킨 남북은 국제종합대회 사상 최초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을 구성했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해 종합 7위를 기록했다.

올해 7월부터 시작된 주52시간 근무는 장기간 노동을 당연시 여기는 한국 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주52시간 근무는 2004년 시작된 주5일 근무제 이후 노동 현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들어갔다. 노동시간 한도를 연장근무 포함해 주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인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결과다. 이로써 자연스럽게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 사회의 큰 흐름이 되었다. 현재 탄력근무제 확대 적용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사회의 기본 방향이 지나친 장시간 노동에서 탈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방탄소년단은 9월 초부터 50여 일간 미국,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등 6개국 11개 도시에서 총 22차례 공연했다. 북미와 유럽에서 총 32만 관객을 모으는 등 엄청난 인기 그룹의 중심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에 케이팝의 진가를 알렸다. 특히 방탄소년단은 9월 24일 유엔 정기총회에서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 목소리를 내라"는 메시지를 담은 연설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방탄소년단 신드롬은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자극했고, 이로써 한글을 배우려는 젊은이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0월 정부로부터 화관문화훈장을 수여받았다.





경기 파주시 법원읍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의 빛' 점등식이 열린다. 점등식에 쓸 등을 만든 전통 공방의 박미희 대표(앞줄 맨 앞)와 주민들 | ⓒ영상미디어

2019 내 삶을 바꿀 정책들

part 01

한반도 평화의 시대 열린다

유슬기 | 위클리 공감 기자

경기 파주시는 12월 21일부터 법원읍에 '평화의 빛 전통 등 특화 거리'를 조성했다. 특화 거리는 약 250m 정도 된다. 이 구간에는 '평화', '빛', '비행' 등을 주제로 법원읍 주민들이 직접 만든 500여 개의 전통 등을 설치한다. '평화의 빛' 점등식을 준비하고 있는 박미희 공방 대표는 "추운 날씨지만 평화의 축제를 준비하는 마음만큼은 따뜻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연하장에 "지난해 우리의 꿈은 평화를 향했고, 새해의 꿈은 함께 잘 사는 것"이라고 썼다. 또 외국 인사들에게 보내는 연하장에는 "지난해 평화를 향한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큰 힘이 됐다"며 "새해 대한민국의 꿈은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함께 잘 사는 것이다"라고 적었다.

2018년 한반도에는 평화의 바람이 불었다. 북한은 2018년 1월 신년사에서 2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며 남북 간 해빙무드를 조성했다. 양측 대표단과 공연단이 오갔고, 일부 경기에 남북 단일팀이 구성된 올림픽 기간에는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한다'는 뜻을 전했다.

4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1차 남북정상회담, 5월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2차 남북정상회담,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분단 70년 역사에서 2018년만큼 남북이 가까운 적은 없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16회에 달했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올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지난해 0회였던 남북회담이 올해만 무려 36회 개최되는 등 한반도 상황이 긴장과 대결에서 평화와 협력으로 전환됐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남북 간 왕래와 민간 교류도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단절됐던 남북 간 육로와 하늘 길도 열리기 시작했다.

지난 12월 19일 있었던 제2차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회의에서는 "남북공동선언의 착실한 이행을 통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철도·도로, 산림, 체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협력이 확대되고 제도화됐다"며 "특히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상호 적대행위 중지,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상호 감시초소(GP) 시범 철수·검증 등 한반도에서 전쟁과 무력충돌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 철도공동조사에 나섰던 우리측 열차가 12월 18일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으로 들어서고 있다. | 뉴시스

평화의 바람 타고 나는 종이비행기

남북의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에서 평화지대로 옮겨가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 5월 1일 강원도청에서 평화지역 선언문을 발표했다. 접경지역이라는 말 대신 '평화지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개발 제한 등 각종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강원도는 '평화지역발전단'이라는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평화지역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그동안 소외지역이나 분쟁지역이라는 이미지를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춘 희망지역으로, 통일을 대비하는 준비된 지역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평화의 빛' 점등식의 등 | C영상미디어

파주는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도시다. 서울과 판문점을 연결하는 통일로, 행주대교에서 임진각까지 연결된 자유로,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철도가 파주를 경유한다. 휴전 이후 남한의 최북단인 파주에는 대규모 미군 병력이 주둔했고, 휴전회담 당시 문산에는 유엔군 대표단 본부가, 인근 용주골에는 미군 휴양 시설이 만들어졌다. 법원읍 역시 1960년 미군 부대가 주둔하면서 유흥업소들이 성업하다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급속하게 쇠퇴하면서 슬럼으로 변했다. 파주시는 2015년부터 법원읍을 탈바꿈하기 위해 문화 창조 빌리지 조성, 주민주도형 전통공방 운영, 청소년 통행금지 해제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그 이후로 마을 분위기도 밝아졌다는 게 주민들의 이야기다. 특히 올해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파주에도 희망의 바람이 불고 있다.

"평화의 등을 만드는 주민들의 마음은 다 같을 거예요. 파주는 한국에서 보면 최북단이지만, 한반도로 보면 가장 가운데에 있잖아요. 앞으로도 파주가 남과 북을 잇는 평화의 도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수호 파주시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점등식은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자 미래로 향하는 평화의 비행을 뜻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시민의 화합이 함께 이루어지는 자리"라고 말했다.

에너지
자급자족 시대 열리다

유슬기 | 위클리 공감 기자





1 지난 10월 '태양광 엑스포'에서 소개된 태양광 자동차 | 뉴시스
2 태양광을 이용한 스마트폰 충전기는 기존 충전기와 속도가 비슷하다 | 뉴시스
3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 뉴시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사업팀을 이끌고 있는 어용선 팀장은 "태양광은 기존 에너지 수급 체계를 바꾸는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유의미한 발전 동력이 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서울시의 에너지원은 다른 지역에서 공급했다. 서울시는 타 지역 발전소에서 공급한 전기를 끌어다 쓰는 '소비도시'였다. 태양광은 '자급자족' 시스템이다. 필요한 에너지를 자가발전으로 만들어낸다.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되는 '프로슈머' 개념이다. 발전의 원리는 간단하다. 패널에서 햇빛을 받으면 셀 안에서 입자 운동을 하며 (+)와 (−) 에너지를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직류전기를 인버터를 이용해 가정에서 쓰는 교류전기로 바꾼 후 그 전기를 콘센트에 연결해주면 된다.

〈에너지 혁명 2030〉을 쓴 미국의 토니 세바 스탠퍼드대 교수는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이 에너지의 원천이 될 것이라 봤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실행 중이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 중 95%는 태양광과 풍력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국내 태양광 시장 규모는 지난해보다 70% 늘어난 1.8GW를 기록했다. 한국리서치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9%가 '태양광 에너지 비중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미국원자력에너지연구소 자료를 보면 1GW의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데 태양광은 1060명, 원자력은 500명, 석탄발전은 19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보였다.

태양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사계절 모두 햇살의 혜택을 입을 수 있다. 냉난방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도 안전지대로 들어올 수 있다. 서울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지난여름 서울지역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경비실 옥상에 태양광을 무상 설치하는 지원정책을 폈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경비실에서도 전력을 마음껏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300W 용량의 미니 태양광 발전기 2개는 6평형 벽걸이 에어컨을 최대 4시간, 선풍기는 하루 종일 가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한다. 공고 당시 공동주택 미니 태양광 시설 설치 신청이 450여 건 들어왔다. 서울시는 일반 공동주택 세대와 같은 형태로 태양광 발전소를 지원하고, 보급업체와 제조사가 여기에 참여해 발전소를 관리한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4500곳에 미니 태양광 시설을 무상 보급할 계획이다.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오래되어 낙후된 건물에는 태양광 설치 시 거치대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환경이 적합한지 현장조사를 한 후에 발전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소규모 아파트 경비실에 근무하는 한 경비원은 "시멘트 지붕으로 만들어진 2평 남짓한 경비실에 발전소가 들어오니, 앞으로는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태양광으로 자급자족하는, 에너지 프로슈머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사업팀의 최의두 주무관은 "겨울철에도 태양광의 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여름철에 에너지 공급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사실 겨울철도 에너지 공급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전자제품이 전열기구화되고 있어요. 석유난로 대신 전기난로를 쓰거나 가스레인지 대신 인덕션을 쓰는 가구가 늘고 있죠. 태양광은 겨울에도 전기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유용한 에너지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태양광 미니 발전소 종류는 세 가




3

그리드패리티(grid parity)

올해 6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32%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유럽에서 발표된 '재생에너지 100% 달성'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유럽 내 태양광 발전비용은 2015년 메가와트(MW)당 80유로(약 10만 원)에서 2050년 57유로(약 7만 원)로 하락할 전망이다. 영국 태양광무역협회는 자국 내 태양광 발전가가 2030년까지 MW당 40파운드, 한화로 약 5만 7000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적으로는 2023년에서 2025년 사이에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단가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존 화력발전 단가가 동일해진다고 본다. 이 시점이 '그리드패리티'다. 태양광이 10년 안에 가장 저렴한 발전원으로 부상하리라는 전망이다.

지다. 베란다 난간에 설치하는 '베란다형', 주택 옥상에 설치하는 '주택형', 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건물형'이다. 베란다형(300W)으로 30일을 자가발전할 경우 한 달에 약 6200원의 전기세를 절약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300W 설치 시 와트당 1400원으로 책정해 42만 원의 지원금을 보조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원전 1기 설비용량인 1GW가 서울시에서 나올 수 있도록 1조 7000억 원을 투입한 '원전 1기 줄이기' 운동을 진행 중이다.

"시민 참여가 바탕이 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스스로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동참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끼는 게 태양광의 가장 큰 힘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친환경 에너지로 가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으니까요."

올해만 서울에서 가정용 태양광을 설치한 가구가 6만여 가구에 이른다. 지난 2년을 합친 가구 수와 비슷하다. 5개 지역의 태양광지원센터에서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 신청부터 A/S까지 관리하고 있다. '태양광 대여사업'도 인기가 높다. 태양광을 설치할 때 설치비 없이 월 대여료를 내도록 한 사업이다. 이런 대여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준공한 강남구의 한 아파트는 매월 4만 7165KW의 전기를 생산해 계약 기간인 7년 동안 매년 9500만 원의 공용부문 전기료를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과 호주에서는 이미 태양광이 전력 수요의 상당량을 공급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 기술도 날로 발달하고 있다. '태양광 스마트폰 충전기'나 '태양광 방음벽'도 설치돼 운영 중이다. 서울 서대문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신촌 아리수공원과 보행자쉼터 등에 태양광 스마트폰 충전기를 설치했다. "충전 속도가 일반 충전기에 뒤지지 않는다"는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에서 태양광사업팀을 이끌고 있는 어용선 팀장 | ⓒ영상미디어

반응이다.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도 설치했다. 일정량의 쓰레기가 모이면 태양광 에너지로 압축해 담는 방식으로 일반 쓰레기통에 비해 여덟 배 이상 저장할 수 있다. 영등포구는 소음 차단은 물론 태양광 기능까지 갖춘 태양광 방음벽을 설치했다. 자원순환센터에 세운 이 방음벽은 240W의 양면 태양광 패널을 활용해 발전효율이 높다. 인천은 태양광 발전설비로 생산한 전기로 묘목을 키워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는 숲 조성 사업에 착수했다. 묘목을 기르는 과정에서도 화석연료를 소비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태양광 에너지가 재생에너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대비가 필요합니다. 태양광 패널을 어떻게 재활용하고 관리할 것인지 지금부터 고민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 설비의 발전이 빨라지는 만큼 패널의 효용이 다하는 20년 후면 대책이 마련되리라 봅니다."



신혼부부 행복주택 내부의 모습 | LH

신혼부부, "2세 계획 세울래요"

유슬기 | 위클리 공감 기자

지난 7월 5일 오후 5시,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신혼부부의 행복주택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주변 시세의 80%로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이 주택에는 결혼 2년 차 신혼부부 우재완, 이진경 씨가 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집이 해결되니 이제 2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1년 반 동안 신혼집을 세 차례나 옮겨야 했던 부부는 "그동안 새집은 꿈도 못 꾸고, 20~25년 된 오래된 집에서 살았다"고 했다. '언젠가는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다'는 바람을 이룬 셈이다.

문 대통령은 "내 집 마련을 위해 개인과 가족이 져온 큰 짐을 이제 국가가 나눠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방문한 오류동 행복주택은 국내 최초의 신혼부부 특화 단지다. 이곳은 청년이 결혼하거나 신혼부부가 두 자녀 이상 출산하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지난 5월 4일부터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신혼부부가 특별 공급을 받을 기회가 늘어났다. 국토교통부가 특별 공급 대상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과 혼인 기간 등 자격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녀 한 명을 둔 맞벌이 부부는 월소득 650만 원 이하라면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는 3인 가족 기준 부부 합산 월소득 600만 원이 넘으면 지원이 불가능했다.

자녀가 없는 결혼 7년 이내 부부도 특별 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무조건 자녀가 있어야 신청 가능했던 예전과 달리 자녀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공급 비율은 2배가 됐다. 민간 건설사가 지은 민영주택은 전체 공급량 중 신혼부부 특별 공급 비율이 10%였는데, 20%로 확대됐다. 공공기관이 짓는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늘었다. 집을 보유한 적이 있어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특별 공급 청약 2순위를 주기로 했다.

즉 신혼부부 특별 공급 1순위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2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새롭게 추가된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무주택 기간이 2년을 경과한 신혼부부'가 된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공급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신혼희망타운'도 특별 공급을 앞두고 있다. 12월 27일부터는 위례신도시, 평택고덕지구에 신혼희망타운 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1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요 업무지구와 교통망이 편리한 입지에 보육 특화 단지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 가장 큰 장점은 주변 시세보다 60~80% 저렴한 분양가다. 초기비용 30%를 부담하면 1%대 저금리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연계해 목돈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공급대상은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다. 입주자는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 공급하고 남은 70%를 가점제로 선정하게 된다.

아이와 함께 행복한 신혼희망타운

보건복지부는 신혼희망타운 안에 국공립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설치해 양질의 육아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등 돌봄사업으로 지역사회 돌봄 공동체 조성을 지원한다. 실제로 신혼희망타운에는 법정 기준보다 두 배 많은 어린이집이 생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분양사업을 맡고 있는 박철우 차장은 "첫 분양인 점을 고려해 LH 청약센터에서 '인터넷 청약 연습하기'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례지구의 경우 12월 27일에서 28일에 접수한 뒤 2019년 1월 14일에 결과를 발표한다. 평택고덕지구는 2019년 1월 15일부터 16일에 접수한 뒤 1월 31일 발표한다.

"분양가격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초기 공급가격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혼부부의 실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연계해 지원합니다."

즉,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신혼희망타운에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전매 제한기간을 최대 8년으로, 거주기간을 5년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 안에는 지속적으로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보육시설들을 활발히 사용하도록 분양형 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혼합해 건설할 예정입니다. 단지 안에서는 전체 호수의 1/3 정도를 장기임대인 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으로 건설해 총 15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주52시간 근무제가 찾아준, 가족의 행복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말하는 전주 시내버스 허혁 기사 | 조선DB

전주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허혁 기사는 격일로 하루 18시간 운전대를 잡았다. 그런 속에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글을 썼다. 교대 근무는 고됐다. 핸들을 잡고 종점을 향해 가는 몸과 마음이 천근만근이었다.

"하루 종일 친절하기 힘드니까, 버스 기사들의 표정이 무뚝뚝한 거예요. 그래야 육체노동과 감정노동을 버틸 수 있거든요."

근무제도가 바뀐 뒤에는 표정부터 달라졌다. 잘 먹고 잘 잔 뒤 운전석에 앉으니 같은 길을 오가면서도 신바람이 났다. 퇴근 후에는 딸과 아내와 마주 앉아 삼겹살을 구워 먹을 수 있는 여유도 생겼다. 주52시간 근무제가 찾아준 행복이었다.

"아들은 서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싱어송라이터의 꿈을 키우고 있어요. 최저임금제가 잘 정착되어서 아들이 꿈을 꾸는 게 너무 고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아이들과 추억이 생겼어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주택가에서 휴직 중인 아빠 세 명이 아이를 안고 있다. | 조선DB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한국의 사회 동향〉 보고서를 보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1.2%에서 13.4%로 크게 증가했다. 롯데마트에서 신선조리 식품생산 업무를 맡은 이익중 대리는 지난해 11월 늦둥이 셋째 아들을 낳았다. 그가 근무하는 직장에서는 '아빠 육아휴직'이 흔하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육아휴직을 해보니, 안 했더라면 후회했을 것 같다"는 후기다.

"아내가 출산한 뒤 병원과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할 동안 집에서 일곱 살, 아홉 살짜리 아들을 돌봤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게 그리울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어요. 직접 해보니 아이가 저절로 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배우자 출산 시 유급휴가를 현행 3일에서 10일로 늘리기로 했다. 부모가 같은 아이를 위해 연달아 육아휴직을 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어난다.

part 02

2019 내일을 여는 사람들



화재 진압복을 입고 있는 김선형 소방사 | C영상미디어

| **김선형** 소방사 |

아버지·남동생과 함께하는 소방가족 "아버지 같은 멋진 소방관 되겠다"

이정현 | 위클리 공감 기자

이제 여성이어서 못할 직업은 없다. 모든 영역에서 여성들의 진출이 활발한 가운데 김선형(27) 소방사는 불길을 뚫고 사람을 구하는 소방관을 직업으로 택했다. 지난 12월 19일 오후 5시 김선형 소방사는 인천강화소방서로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했다. "겨울이라 난방장치로 인한 화재가 많다"며 언제 닥칠지 모를 화재 신고에 대비한다.

김선형 소방사의 이력이 눈길을 끄는 것은 아버지, 남동생 모두가 소방관인 소방가족이기 때문이다. 2018년 10월 임용돼 본격적인 소방관의 길을 걷고 있는 그는 "아버지와 같은 멋진 소방관이 되고 싶어 소방직에 도전하게 됐다"고 당차게 이야기한다.

"처음에 아버지는 걱정 반, 기대 반이었어요. 아버지의 직업을 따른다고 하니 기쁘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여자니까 걱정한 것이죠. '남자 소방관도 위험하다'며 걱정하셨지만, 일단 수험생활에 들어가자 누구보다도 응원과 격려를 해주셨어요."

아버지의 격려 중 기억에 남는 말이 있는지 묻자, "시험에 몇 번 떨어져 낙심하고 있을 때, '네가 최고다'라고 이야기해준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추억한다. 또 "먼저 합격한 남동생이 미안한 마음에도 묵묵히 믿어주고 지원해준 것도 올해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덧붙였다.

소방관 경쟁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일 자체가 주는 매력과 공무원이라는 안전성 때문일 것이다. 그만큼 수험생활도 녹록지 않다. 김선형 소방사 역시 "최종까지 갔다가 떨어진 경험도 있다"며 "필기시험을 준비하면서, 체력 테스트에서 부족한 달리기를 만회하기 위해 꾸준히 조깅을 했다"고 말했다.

강화소방서에서 올해 첫 근무를 시작한 그는 화재 현장에서 실무를 쌓으며 소방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얼마 전 아파트에 불이 나서 출동했어요. 다행히 구급대원이 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서 초기 진화가 잘됐죠. 불탄 내부를 보는데, 불이 무섭다는 것을 실감하게 됐어요. 소방서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1



2

1 화재 진압 장비 점검 모습 | C영상미디어
2 소방공무원 임용식 가족사진 | 김선형

그는 겨울철 화재 예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요즘 전기난로를 많이 쓰는데, 과열돼서 불이 옮겨 붙을 수 있어요. 집을 나설 때는 난방기구의 전원이 꺼져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의 남동생은 경기도, 아버지는 전라도에서 떨어져 근무 중이다. 소방가족으로서 맞는 새해 각오를 물었다.

"아직 배우는 단계라 어색하긴 하지만, 체력과 기술을 연마해서 멋진 소방관이 되고 싶습니다."

| **김창규** KTX 기장 |

‘200만km 무사고 운전’ “떠나는 마지막까지 안전운전”

이정현 | 위클리 공감 기자



출발 준비 중인 김창규 기장 | ©영상미디어

지난 12월 18일 오전 10시 20분. 11시에 출발하는 부산행 KTX 운행 준비로 바쁜 김창규(57) 기장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2003년 11월 KTX 원년 멤버로 15년 넘게 조종간을 잡았지만, “항상 집을 나설 때면 안전운전을 다짐하며 마음을 다잡는다”고 말한다.

내년 정년퇴임을 앞둔 김 기장은 ‘200만km 무사고 운전’ 기록 보유자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40km라는 것을 생각하면 200만km 무사고 기록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어림잡아 알 수 있다. 그가 “무사고로 퇴직하는 것은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이유다.

“저 혼자 잘한다고 무사고 기록이 생기는 것이 아니죠. 차량, 시설, 전기 등 모든 분야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박자가 맞았기에 평생 무사고 운행이 가능했습니다.”

김 기장은 1988년 입사했다. 화물열차에서 시작해 무궁화, 통일호, 새마을호 등을 두루 운전하다 시운전부터 KTX와 함께했다. 안전운전의 비결을 묻자 기본을 강조한다. “모든 직장인이 그렇겠지만, 입사할 때의 마음가짐으로 운전한다”며 “기차에 오르기 전 안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법적으로도 당연하겠지만 핸드폰 등은 끄고, 오직 안전운전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승객들의 생활권이 달라졌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세 시간이면 주파하니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 됐죠.”

또 그는 “시속 300km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차량과 함께 여러 안전시스템이 받쳐줘야 한다”며 KTX에 대한 자부심도 드러냈다. 다만 “옛날 새마을열차 운전할 때처럼 굽이굽이 산길을 돌면서 좋은 풍경을 감상하는 낭만 같은 것은 없어졌다”고 아쉬움을 내 비쳤다. “여러 사람을 안전하게 모시는 책무를 가진 것이 기장이다”라고 말하는 그가 철도에 입문한 것은 이런 낭만 때문이었다.

“동네 앞에 철길이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기차를 운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혹시 KTX 기장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들려줄 조언이 있지 않을까.

“우선 다른 열차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아야 돼요. 그런 다음 KTX 기장에 지원해도 인성, 건강,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선발하죠. 차분해야지, 덤벙대면 안 돼요.”

정년을 1년 앞둔 그에게 새해 희망을 묻자 역시 안전 운행을 강조한다.

“모든 고객들이 안전하게 KTX를 이용하도록 떠나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송범준** 순경 |

첫 근무지가 2018년 베스트 파출소 "국민에게 도움 주는 경찰 되고 싶다"

이정현 | 위클리 공감 기자

올해 6월 경찰관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송범준(27) 순경에게 12월 기쁜 일이 생겼다. 자신이 근무 중인 논현1파출소가 2018년 베스트 파출소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베스트 지구대·파출소는 1년 동안 전국 지구대·파출소 중 관내 인원 대비 치안 수요, 현장 검거, 공동체 치안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결정한다.

지난 12월 18일 오후 2시 서울 논현1파출소에서는 인증패 제막식이 거행됐다. 동료들과 기념 촬영을 하며 기뻐하는 송 순경은 "파출소 입구에 인증패가 달리니 너무나 자랑스럽다"며 "논현1파출소 모든 경찰관들이 열심히 했기에 가능했다"라고 말했다. 선정 이유에 대해서는 "강남에서 가장 바쁜 파출소라 그만큼 신고가 잦은데, 신고 검거 우수사례가 많고, 범죄 예방활동도 잘 이뤄져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2018년은 송 순경이 경찰관으로 다시 태어난 해다. 그는 언제부턴가 도움을 주는 경찰관이 되고 싶었다.

"경찰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 때 찾는 사람이죠. 가장 직접적이면서 일차적으로 도움을 주는 경찰이 되고 싶었어요."

"공부하면서 떨어지는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 일주일에 세 번씩 체력훈련을 했다"는 그는 "수험기간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라는 막연한 부담감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이야기했다. 현재 그는 매일 끝없이 이어지는 사건사고에 대처하고 있다. 유흥업소가 많은 지역이라 밤이 되면 '술'과 관련된 사건이 많다.

"주점, 음식점에서 술 먹고 시비가 붙는 경우가 많아요. 연말연시를 맞아 주취폭력이 많은데, 초동조치를 하는 것이 주요 업무죠."

민생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송 순경은 특히 성범죄가 일어날 경우 여성 피해자들에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아무래도 제가 여성 경찰이다 보니 여성 피해자들이 성추행 범죄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남성 경찰에게 말하려면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여성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죠."



출동 준비 중인 송범준 순경 | C영상미디어

그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대처 방안을 설명했다.

"범죄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찾아와요. 일단 성추행 등 피해를 당하면 피해 상황을 가능한 한 그대로 보존해서 증거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연말이 되면 여러 술 모임으로 사람들은 즐겁지만, 여러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경찰관들은 힘들다.

"겨울철이 되면 술 모임이 많아져서 사건이 두세 배 늘어나요. 음주운전, 상호 폭력이 많아지고 길거리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더욱 많이 생겨요."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올해 새롭게 경찰 업무를 시작한 송 순경은 당찬 포부를 밝혔다.

"내년에는 업무를 더욱 잘 익혀서 파출소에 도움이 되는 순경이고 싶어요. 또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 여러분에게도 믿음직한 순경이 되고 싶어요."

이슈를 품은 역사 이야기

신도시 한양의 2전 3기



정훈이

12월 19일 정부는 서울 인구 분산에 초점을 맞춘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 4곳을 확정해서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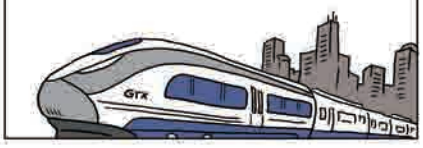
대규모 택지는 경기 남양주, 하남, 과천, 인천 계양으로 12만 2000호 규모이며, 중소규모는 37곳에 3만 3000호다.



대규모 택지 4곳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로 서울과 연접하거나 매우 가까운 곳에 있으며,



GTX 등 광역 교통망을 충분히 갖춰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로 조성될 것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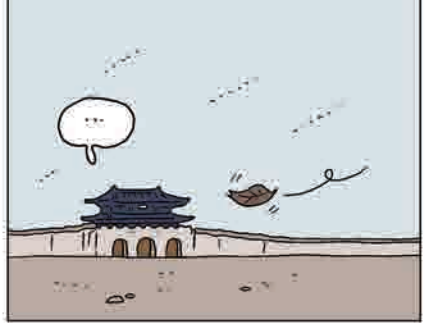
신도시는 보통 입주 초기에 교통이나 편의 시설이 미흡해서 생활이 불편한 경우가 많다.



거리는 인적이 드물고, 상가는 비어 있고, 심지어 밤에는 불 꺼진 유령도시 취급을 당하기도 하는데



1000만 인구의 서울도 한때 황량한 유령도시 취급을 받던 신도시 시절이 있었다.



한양은 고려 말과 조선 초에 천도했다가 개경으로 돌아가는 '환도'라는 굴욕(?)을 두 번씩이나 겪고



우여곡절 끝에 세 번째 시도 만에 조선의 수도로 자리 잡았다.



고려의 마지막 임금 공양왕은 신라 말 풍수지리설의 대가인 도선이 지은 <도선비기(道詵祕記)>의 '지리쇠왕설'에 따라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390년(공양왕2) 음력 9월, 한양으로 천도를 단행했다.



그러나 천도 후 불길한 일이 잦자, 이듬해 2월 개경으로 환도했다.



조선 건국 후, 태조 이성계와 개국공신들은 야심 차게 한양 천도를 추진했다.



하지만 많은 관료가 한양과 개경 두 집 살림을 했고, 수도 이전이 못마땅한 개경 기득권층의 불만도 컸는데



개경의 큰 상단들은 아예 한양에 점포를 내지 않을 정도였다.



태조 7년, '제1차 왕자의 난'을 겪으면서 태조는 두 아들과 총애하던 신하, 그리고 권력과 민심마저 잃게 되었다.



즉위한 2대 정종은 결국 민심 수습을 위한 특단의 카드를 꺼냈는데 바로 '개경 환도'였다. 1399년(정종1)



환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도성 사람들이 짐을 바리바리 싸서 개경으로 가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오자



성문을 걸어 잠그고, 백성을 타일러서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실록>은 전하니, 한양의 초라한 위상을 짐작할 만하다.



한양 천도까지 물거품이 된 태조는 환도하는 길에 신덕왕후 강씨의 묘인 정릉에 멈춰서서 눈물을 흘렸는데

신덕왕후 : 태조의 두 번째 부인, 죽은 세자 이방석의 어머니



개경에 돌아가서도 남부끄러워서 개경 백성의 눈을 피해 새벽에 숙소로 들어갔다고 한다.



1404년(태종 4) 다시 천도 논의가 불거졌고 신하들의 의견은 분분했는데



종묘에서 동전 던지기로 길흉을 점치는 '척전(擲錢)'의 결과에 따라 한양이 도읍으로 정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람 중심 미래 교육'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및 국공립 유치원 학급 증설·서비스 개선 방안을 준비하는 유아교육정책과를 방문, 직원들과 얘기를 나누며 격려하고 있다. | 연합

2019년 새해, 정부는 이렇게 일합니다

오동룡 | 위클리 공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11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1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3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또 12월 20일에는 국방부와 여성가족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한 해의 정책성과를 돌아보고 내년도 정책 추진 방향을 미리 점검하는 차원의 총괄적인 성격이라 할 수 있다. 올해 업무보고는 지난 1월에 시작한 반면, 내년도 업무보고는 시점이 조금 당겨졌다. 하루 1~2개 부처씩 매주 릴레이로 업무보고를 실시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올해 업무보고의 목적은 대통령이 직접 부처를 찾아서 부처 간 소통을 강화하고 해당 부처의 한 해 정책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산업 활력 제고 방안과 제조업 혁신 방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업체 대표들도 업무보고에 참석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고 했다.

교육부

교육 신뢰 회복에 집중 2019년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2019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공익제보 신고센터를 내실화하고, 학교 비리를 밝히는 내부 공익 제보자에 대한 신변 노출 방지 및 신분보장 제도를 정비한다.

또 교육부와 사립학교의 유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 교육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을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한다.

교육현장의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 시험지 유출 등 비위 발생 시 사립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해 징계를 강화한다. 교원 징계의결 요구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변경명령 불이행 시 고발조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비리 근절의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2019년 2학기부터 고교무상교육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2019년 2학기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한 뒤 2021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애초 계획은 2020년 시작, 2022년 전면 시행이었지만 일정을 앞당겼다. 내년 고교 무상교육에는 약 385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했다. 교육부는 필요한 법 개정을 내년 3월까지 마치고 재정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로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교육부는 연구선도학교를 내년 342개교로 올해 105개교의 3배 수준으로 늘려 제도 도입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와 관련해서는 모든 학교에 취업지원관을 배치하며, 지역사회산업과 연계한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를 지정 운영하고 학과 개편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학술비전 2030이라는 중장기계획을 학계 주축으로 수립하는 등 대학 학술연구 역량을 강화한다.

시간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내년에는 대학 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대학에 총 290억 원을 지원하고 시간강사 운영 매뉴얼도 만든다. 대통령 공약인 공영형 사립대와 관련해서는 10억 원을 들여 역할과 계획 연구만 이뤄진다. 원래 교육부는 90억여 원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예산이 깎여 무산됐다.

사립교원도 국공립 수준으로 징계

교육부는 시험문제 유출 등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을 징계할 때 국공립교원에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할 계획이다. 관련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사립학교 교원은 소속 사학법인 정관상 기준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그러다 보니 비위 정도보다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교육부, 교육청의 교원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사학법인에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2019년부터 시행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 문턱을 넘어 교육부가 세부기준만 마련하면 된다. 당국의 시정변경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학법인 고발도 의무화된다.

올해 논란이 됐던 교수의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끼워 넣기를 막기 위해 교육부는 국가지원으로 쓰는 논문에 자녀나 배우자가 참여하면 반드시 지원기관 승인을 받게 할 계획이다. 연구비를 많이 받은 상위 20개교 대상 연구윤리 실태조사도 벌인다.

교육부와 사학 간 유착 고리를 끊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는 취업제한 대상을 사립초중고와 사립대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사학법인 직원이나 사립대 총장, 학장, 처장 등 직위에 있는 교원만 취업제한 대상이다. 또 교육부는 최근 5년간 비리로 제재를 받은 대학 등 문제 발생 사립대의 총장으로 퇴직공무원이 취업하려는 경우 취업제한 심사를 퇴직일부터 3년이 아닌 6년까지 받도록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부총리 주재 교육신뢰회복점검단과 교육신뢰회복추진팀을 신설해 교육비리 현황을 집중조사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치원과 초중고뿐 아니라 대학 감사 결과를 학교명을 포함해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신설

교육부는 2019년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1080개 신설한다. 농어촌유치원 등 통학권역이 넓은 곳을 중심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맞벌이 가정 자녀 등의 오후방학돌봄 참여도 보장한다. 또한 유치원에서 한글수학영어를 떼지 않고 초등학교에 입학해도 문제없도록 국가가 기초능력 확보를 책임지기로 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월 10만 원씩 유아학비를 추가 지원한다.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교육급여는 내년 초등학생 기준 20만 3000원, 중고교생 기준 29만 원으로 최저교육비 100% 수준까지 올린다. 장애학생을 위해서는 국립대인 공주대와 부산대에 2021년 개교하는 특성화 특수학교를 설립한다. 특수교육 대상자 인권보호 범정부대책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고용안전망 강화, 직장 내 갑질·채용비리 근절

고용노동부는 12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정부업무보고를 했다. 이 자리에서는 2019년 3대 핵심과제가 공개됐으며 ▲고용서비스·고용안전망 강화 ▲직장 내 갑질·채용비리 근절 ▲최저임금·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이 핵심 과제로 발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보고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을 현실화한 것에서는 일부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면서도 어려운 경제상황이나 소상공인들의 비판도 있었음을 인정하며 6가지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중심으로 일자리 정책 수립

고용노동부는 먼저 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할 방침을 세웠다. 2018년 19조 원에서 2019년 23조 원으로 사업규모를 크게 확대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직접 일자리 공급,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강화, 실업 소득지원 확대에 나서는 등 2018년의 기조를 2019년에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문제 해결은 직접 나서기보다는 지자체를 지원하는 맞춤형 정책을 택했다. 특히 청년과 신중년 일자리 사업에서 지자체와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청년 구직활동비의 경우 정부가 졸업 후 2년 이내를 지원한다면, 그 이후 장기실업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형식이다.

일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고용보험상 출산휴가를 못 받았던 임시, 일용, 특고, 자영업 여성에게도 출산급여가 지원된다. 이 조치로 추가로 2만 5000명이 최대 15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발맞춰, 남성 근로자의 출산휴가도 확대된다. 현재 유급 3일, 무급 2일의 출산휴가는 유급 10일로 늘어나며, 중소기업에 한해 5일은 임금을 지원하는 계획이 2019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부터 이어져온 '100인의 아빠단'은 육아에 관심이 있는 아빠들이 육아를 즐겁게 하기 위한 고민을 서로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이다. | 연합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현장 안착 지원

2018년 한 해 동안 큰 이슈가 된 노동시간 단축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도 현장 안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먼저 고용창출장려금을 확대하고 일터혁신 컨설팅,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노동시간 단축을 장려한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에 투자되는 비용도 기존 209억 원에서 140억여 원으로 증액한다.

탄력근로제도도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서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그에 따라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도 손본다. 국제기준을 고려해서 결정기준을 보완해 사회적 수용도를 높인다. 또 영세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강화하면서 현장 안착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매뉴얼 발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과 취업규칙 표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눈에 띈다.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과 상관없이 자체적인 플랜을 세우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또 이번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태처럼 직장 내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민간으로 확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도 계속된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정착시켜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관행을 확산한다. 2017년 12월 발표된 표준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전환자의 체계적 인사관리도 지원한다. 그 외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불법파견에 대한 사업장 지도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민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외에도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내실화, 정기적 현장점검을 통해 채용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14개 지역 활력 회복 프로젝트 추진 2022년까지 2만 6000개 일자리 만든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제조업 혁신,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뛰게 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업무보고를 했다. 산업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14개 지역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해 2022년까지 2만 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4대 주력 품목군별로 맞춤형 전략을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신산업 규제 완화, 기업가 정신 복원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산업부가 발표한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의 핵심은 크게 ▲지역산업 생태계 활력 회복 ▲제조업 혁신 전략 ▲도전적 기업가 정신의 복원 등 세 가지다.

산업부는 지역산업 생태계 활력 회복을 위해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같은 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산을 위해 내년 1분기까지 확산 모델, 참여 주체 역할을 도출키로 했다. 전북,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산업 위기 지역에 대해 14개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 2022년까지 2만 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전북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GM공장 폐쇄로 침체를 겪고 있는 전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상용차 기반, 재생에너지 사업과 연계한 신산업 창출 방안을 모색한다. 부산과 경남은 지역 중소 자동차 업계의 일감 창출 방안을 마련하고 낙후된 산업단지를 미래형 산업단지로 혁신하는 부흥 전략을 추진한다.

광주·전남은 한전의 에너지밸리와 친환경 가전 수요를 기회로 첨단전력산업, 공기(空氣) 산업 등 대체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대구·경북은 자율차, 홈케어 가전 등 미래산업 인프라를 집적하고 섬유·철강 등의 신(新)수요를 창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제조업 혁신 전략으로 4개 산업군별로 맞춤형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산업군은 그간의 정책 노력에도 대외 경쟁력이 아직 낮다는 지적에 따라 R&D에 매년 1조 원 규모로 대대적인 투자와 개발 방식의 전환으로 자립화를 넘어 글로벌화를 추진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산업군은 후발국의 추격과 핵심 기술·인력 유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어, 적기에 대규모 투자와 차세대 기술 선점을 지원해 추월 불가능한 초격차 전략을 추진한다. 10년간 120조 원(민간투자)을 투자해 대·중소 상생형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에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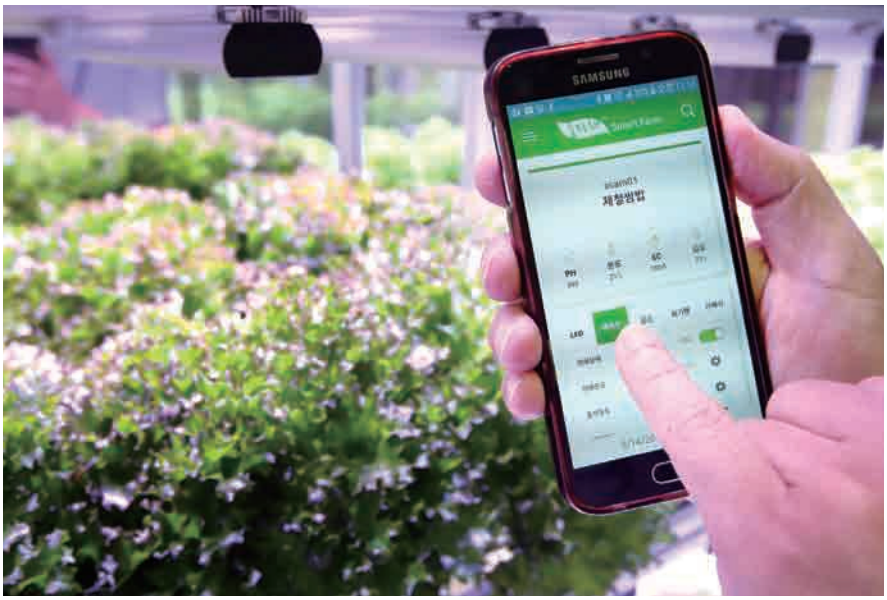
자동차·조선 산업군은 미래 트렌드인 친환경·스마트화로의 산업생태계 개편을 가속화해 재도약한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중소·중견 협력사에 신규자금 및 만기연장 등에 3조 5000억 원 이상을 지원한다. 또 노후차 교체 지원, 친환경차 생산 비중을 현행 1.5%에서 2022년까지 10%로 올리기로 했다.

섬유·가전 산업군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전통산업을 첨단 스마트산업으로 탈바꿈한다. 동대문 중심으로 주문에서 생산까지 24시간 내 완결되는 디지털 패션 생태계를 구축한다. 인건비 부담이 큰 봉제·염색 분야는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미래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 개혁에 나선다.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생태계를 완성하고 관련한 법적 기반을 완비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수소버스 2000대 보급 등 2019년 1월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에너지 효율, 원전 해체, 전력중개사업 등 다양한 에너지 신산업 창출 ▲산업부 내 항공 전담 조직 설치 등 항공산업 도전 ▲로봇시장 육성 위한 금융지원 및 전문기업 육성 ▲산업 R&D의 일정 부분(2019년 100억 원)을 미래세대를 위한 대도전과제(Grand Challenge)에 투자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산업부는 도전적 기업가 정신 복원을 위해 지난 10월에 발굴한 민간 신산업 일자리 프로젝트 140개에 대해서는 전담관을 지정해 투자가 성사될 때까지 기업애로를 끝까지 추적해 해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1월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령이 발효되는 대로 대대적인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ICT 빌트인 스마트팜을 사용함으로써 스마트폰 하나로 농작물을 관리하는 시대가 열렸다. | 연합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2차 대상지 2곳 추가 선정… 창업보육생 100명 선발

농림축산식품부는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 사는 농업·농촌'이라는 주제로 업무보고를 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업무보고 다음에 '직불제 개편 방안', '농업·농촌 분야 청년일자리 확대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농식품부는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창출과 스마트 농업 확산을 통해 혁신적인 미래 농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올해 각종 현안에 대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으나, 현안 해결에 집중해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추진이 미흡했다고 자평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사람중심의 농정 개혁'을 본격화하기로 하고,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6대 중점 과제를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6대 과제는 ▲농업·농촌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스마트 농업 확산 ▲공익형 직불제 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 ▲로컬푸드 체계 확산 ▲농축산업 안전·환경관리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업·농촌의 고용 역량을 꾸준히 확충해 청년층의 농업 신규 종사자 수를 2018년 1800명에서 2019년 3700명, 2022년 1만 명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물간호복지사, 양곡관리사, 산림레포츠지도사 등 국민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새로운 자격증을 도입하고, 채용 의무화 등을 통해 직접적 고용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도시농업 관리업,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등 새로운 일자리 수요 업종도 적극 발굴,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 주거단지 등 맞춤형 생활여건 조성, 농촌 공동체 일자리 활성화 등 방안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스마트 농업의 확산을 위해 내년 상반기 '스마트팜 혁신밸리' 1차 선정지 2곳을 착공하고, 2차 대상지 2곳을 추가 선정해 2022년까지 4곳을 완공하기로 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 2019년 창업보육생 100명을 선발하는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빅데이터를 공유·거래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첨단기술로 공동 방역과 분뇨 처리가 가능한 스마트축산 시범단지 3곳을 조성하는 한편 블록체인을 활용한 축산물 이력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직불제의 경우, 쌀 중심에서 공익형으로 개편이 추진된다. 기존 쌀과 대규모 농가 중심에서 기타 작물과 중소 농가 소득 안정 및 공익적 기능 강화로 정책 목표를 전환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2020년 시행을 목표로 농업인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직불제 개편 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법령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쌀 수급 상황에 따른 생산 조정·시장격리·방출 등을 매뉴얼로 관리하는 수확기 시장안정장치 제도화 방안도 내년 하반기에 마련된다. 농식품부는 나아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성공 모델을 만들기로 하고, 시범사업과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경작지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영농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도 보급한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단체급식과 직매장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로컬푸드 체계도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군 급식 관련 협정서에 지역 농산물 의무비율을 반영하는 등 군 급식에 대한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거나,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로컬푸드 구매실적을 추가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가정용 달걀에 대해서는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살균·포장하는 선별포장업 유통을 의무화하고, 2019년 12월에는 가금·가금산물 이력제를 도입한다.

환경부

미세먼지 배출량 4만 668톤 감축 노후 지하시설물 관리 강화키로

환경부는 12월 18일 '모두가 함께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이라는 주제로 업무보고를 했고, 이어 '미세먼지 감축 전략', '낙동강 물 문제 해결 방안'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

환경부는 2019년에 ▲먼지 총력 대응 ▲통합 물 관리 안착과 물 분야 현안 해결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 등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주요 대책 시행계획을 구체화하고 빈틈없이 집행해 내년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4만 688톤 감축할 계획이다. 2014년 대비 12.5% 줄어든 것이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조치를 선제적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틀 후 고농도가 예상되는 경우 하루 전부터 예비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주간예보제를 내년 하반기에 시범 운영해 예비저감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드론과 이동식 측정차량을 이용해 불법적인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방지시설의 미가동 행위를 감시하는 등 불법적인 미세먼지 배출을 촘촘하고 입체적으로 감시·감독할 계획이다. 고농도 발생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69만 대 운행 제한, 석탄·중유 발전소 42기에 대해 80% 수준으로 운전을 조정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경유차를 줄이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한 연장, 수소버스 보급 시범사업,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 등 2022년까지 친환경차를 54만 5000대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통합 물 관리 안착을 통해 비효율적인 수질·수량 관리를 개선하고, 낙동강 유역 내 물 이용 문제에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한다. 또한 4대강 보 문제도 수계별 여건을 고려한 물 이용 대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보 개방 폭과 기간을 객관적 모니터링을 통해 확보하고, 수계별 민·관 협의체를 16개 보별로 확대해 지역주민,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최근 온수관 파열, 통신구 화재 등으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노후지하시설물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노후 수도관에 대해서는 당초 55개로 계획된 정비사업을 60개 사업으로 확대하고, 노후 하수관에 대해서도 당초 2021년까지 계획된 노후관로 1507km 교체·보수 사업을 2020년까지 앞당겨 실시한다. 아울러 물산업, 생태산업 등 핵심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기업의 녹색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대형매장 내 녹색제품 판매 공간 및 구비율을 3배 이상 확대하고, 녹색제품의 온라인 판매 수수료 인하 등 녹색소비 활성화에도 나선다. 2019년도 녹색산업 수출을 연 10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종전 대비 약 2만 4000개 녹색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계획이다.



국방부

‘9·19 군사합의’ 적극적으로 이행 첨단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



2018년 12월 12일 수요일 철원 휴전선 중부지방에 있는 북한 경비 초소를 조사하기 위해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을 건너기 전에 한국군 병사가 북한 군인과 악수를 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은 작년 9월 군사협정의 일환으로 휴전선을 따라 경비 초소 일부를 제거했다. | 연합

국방부는 12월 20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이라는 주제로 한 업무보고에서 ‘9·19 군사합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의 추동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DMZ 내 모든 GP 철수 협의

국방부는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DMZ 내 남북 공동 유해 발굴 ▲한강하구 공동이용 보장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등을 골자로 하는 9·19 군사합의를 지속해서 이행하기로 했다.

우선 남북 각각 11개 GP의 시범 철수에 이어 DMZ 내 모든 GP 철수를 위해 북측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설치 문제 등 군사현안을 논의하는 남북군사공동위는 내년 상반기 중 가동하는 것이 목표다.

국방부는 우리 측 차관급, 북측 인민무력성 부상급을 위원장으로 분기 1회 정례적으로 남북군사공동위를 개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남북군사공동위에선 남북 국방장관 및 합참의장 간 핫라인 개설 문제도 논의된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남북 자유왕래 연내 실현은 국방부의 목표였다.

내년 4월부터 강원도 철원군 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남북 공동유해발굴에 착수하기 위해 내년 2월 남북공동유해발굴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9·19 군사합의 이행 관련 완벽한 검증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북한군 귀순 등 우발 상황에 대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발생 가능한 유형별 위협을 상정해 대응매뉴얼을 보완하기로 했다.

첨단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

국방부는 국방 개혁에 대해 “(우리 군을)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과학 기술 중심의 전력구조로 개편할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육군은 신속한 대응 작전이 가능한 부대로 개편된다. 2019년 1월에 창설되는 지상작전사령부 예하에 다연장로켓(MLRS)과 전술지대지 유도탄 등을 갖춘 화력여단이 창설되고 1개 기계화보병사단(20사단)은 해체된다.

해병대 1사단의 3개 연대는 3개 여단으로 증편되고, 상륙작전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해군 특수전전단의 선견작전대대가 창설된다. 공군에선 고고도무인정찰기(HUAV)를 운용하는 정찰비행대대와 스텔기 전투기인 F-35A를 운용하는 전투비행대대가 각각 창설된다. 국방 개혁에 따라 사이버작전사령부와 전비태세검열단이 국방부에서 합동참모본부 소속으로 변경되고, 국군체육부대와 유해발굴감식단, 정보본부, 안보지원사령부 등 4개 국방부 직할부대도 개편된다.

국내 방산업체 지원을 위해 방위력개선비 중 국내 투자 비중을 80%까지 확대하고 방산업체의 생산능력을 고려해 무기체계의 연도별 전력화 물량을 균형 있게 안배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방산업체 대표이사(CEO) 간담회를 6개월마다 개최하기로 했다.

전작권 조기 전환 준비

2019년에는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한국군의 작전 주도능력을 검증하는 첫 단계인 최초작전운용능력 평가가 실시된다. 최초작전운용능력 평가는 내년 8월에 실시되는 한미연합 지휘소연습(CPX) 때 이뤄질 예정이다. 매년 8월에 실시되던 한반도 유사시 대비 전구급 지휘소연습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었지만, 내년에는 명칭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작전권 전환 검증절차는 최초작전운용능력 평가에 이어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등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양육비 월 20만 원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제도 개선

여성가족부(여가부)는 12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여가부는 2019년 3대 핵심과제로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 ▲청소년 보호·성장을 돕는 지역사회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연구 기념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다양한 형태 가족 위한 제도·인식 개선

여가부는 한부모가족과 동거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적 제도와 인식 개선에 나선다. 저소득 미혼모·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현행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린다. 아동양육비 대상 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양육 공백 해소와 자립지원을 위해 미혼모·한부모 시설 120개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할 계획이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담을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건가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건가법에는 가정의 개념을 혈연이나 입양으로 구성된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사실혼 개념을 넣어 가정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법명도 가정의 가치를 다양화하기 위해 가족기본법으로 바꾼다. 다문화 상담, 양육비 상담, 한부모 상담 등의 상담 창구를 하나로 통합해 가족 전용상담 정보체계를 내년 8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성평등 목표제, 고위관리직 목표제 추진

여가부는 성평등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는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평가받는다. 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받은 곳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민간기업의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 도입을 추진한다. 기업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여성 고위직 비율 조사와 임원의 성별 현황 공개를 확대하고 가족친화기업인증 심사 기준에 여성 고위관리직 비율을 반영한다.

생활 속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에서 성평등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사를 성평등 교육 멘토로 양성한다. 지역에서는 주민, 기초의원, 기업 등을 대상으로 성평등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경찰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을 실시한다.

성폭력과 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내실화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는 생활안정지원금을 확대 지급한다. 월 지원금은 올해 대비 5% 증가한 140만 4000원이다. 위안부 관련 기록사료 분석과 맞춤형 교육 강화로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 통합 지원 강화

위기 청소년을 발견하고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지원을 강화한다. 여가부는 지역사회 주도로 꼼꼼한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해 CYS-Net의 기능을 확대한다. CYS-Net는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의료·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사회안전망이다.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업실적을 지자체 평가에 반영토록 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근로권 침해, 가출, 유해환경 노출, 범죄 취약, 자살 위험 등 청소년 위기 상황을 세분화해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소년과 고용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권익 교육을 올해 600회에서 내년 1800회로 늘린다. 가출 청소년을 위해 거리상담 전문요원을 내년 상반기까지 90명으로 늘리고 청소년 쉼터도 138개로 확충한다. G



문대통령이 12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19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참석자들과 강릉 펜션 사고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하고 있다. | 연합

문재인 대통령 방문한 그 스마트공장 '삼천산업' 가보니

스마트하게… 생산성↑, 일자리↑

장가현 | 위클리 공감 기자

제조업이 호황을 누리던 1970~1980년대 경남 창원시는 기계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산업도시였다. 공장은 쉴 새 없이 가동됐고 여기서 만든 제품은 해외 각지로 수출돼 우리 경제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는 데 적지 않은 공을 쌓았다. 'IMF도 비켜가는 도시'였던 창원은 베트남,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만든 제품이 등장하자 가격 경쟁력을 잃었다. 경쟁력에 밀려 이제 쇠퇴 일로에 접어드나 싶었던 제조업이 '스마트공장'으로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

스마트공장은 제조 전 과정을 정보통신기술(ICT)과 통합해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고 제품 불량률을 줄이는 등 생산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맞춤형 공장을 말한다. 제품 기획과 설계부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ICT를 접목해 제조 단가를 낮출 뿐 아니라 제품의 품질,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남 창원시에 있는 '삼천산업'은 스마트공장을 잘 구축한 기업 중 하나다. 세탁기에서 진동과 소음을 흡수하는 서스펜션(suspension)이 주력 제품이고 식기세척기, 정수기, 의류관리기에 들어가는 노즐, 케이스, 펌프 등 부품도 제작하고 있다.

삼천산업이 자리하고 있는 창원시 차룡단지 일대는 성냥갑 같은 공장이 가득 채우고 있었다. 공장이 바삐 돌아가는 시간이어서인지 도로엔 지나는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었다.

최원석 삼천산업 대표가 현장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현장으로 들어서는 문을 여는 순간 조용하던 일대가 시끄러워졌다. 왱왱거리며 기계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옆 사람이 하는 말도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현장에서는 소리 지르며 대화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정도는 기계 소음이 적은 편이라고 최 대표가 말했다.

현장은 생각 외로 정말 깔끔했다. 반짝거리는 초록색 바닥에는 먼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기계에도 기름때나 오물이 묻어 있는 모습이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 최 대표는 공장 한쪽에 있는 기계를 가리키며 사용한 지 20년이 넘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로 말해주지 않으면 전혀 눈치 채지 못했을 만큼 윤이 났다. 새것처럼 말끔한 기계들 앞에 모니터가 있다. 모니터는 삼천산업이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하면서부터 현장직 근로자들과 함께해온 것이다. 모니터 화면으로 생산 제품, 일 생산 합계 현황, 실적, 제품 생산 현황 등을 확인한다. 기계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관리자를 호출할 수도 있는데, 이 기능을 사용하면 담당직원에게 바로 문자가 간다. 현장근로자들은 모두 이 모니터 화면으로 확인한다. 저마다 소음 방지 귀마개를 끼고 제품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는지 꼼꼼하게 체크했다.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다

벽 한쪽에는 기계 담당자가 설비를 스케치해놓은 것들이 전시돼 있었다. 최 대표는 직원들이 손수 그린 스케치를 가리키며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한 후 직원의 역량 교육 중 하나로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비 스케치와 직원 역량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싶지만 이 교육이 생각보다 큰 변화를 가져왔다.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하면서 강한 현장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현장이 달라지면 근로자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로자 마인드 교육, 역량교육을 직접 진행했어요. 처음에는 자기 설비의 청소 매뉴얼을 만들어보자고 했어요. 청소 매뉴얼을 다 만들고 난 다음 했던 게 스케치 경진대회예요. 그림을 그리면서 설비를 더 자세히 이해하게 됐어요. 장치 이름을 쓰고 기억하게 된 거죠. 스케치를 하기 전에는 설비가 고장 나면 고장 났다고만 했는데 이제 명칭을 아니까 어느 부분, 무슨 버튼에 빨간색 불이 들어왔다는 식으로 자세히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스케치 다음에는 설비 수리 경진대회를 열었다. 15년 가까이 설비 수리를 해온 직원이 2분 9초 만에 수리하고, 설비를 3개월 배운 담당직원은 2분 15초 만에 해냈다. 본인이 다루는 기계를 직접 수리할 수 있게 되자 직원들에게 자부심이 생겼다. 자연히 직원들 역할도 변했다. 스마트공장 이전에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생산직 근로자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설비를 수리할 줄 알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 개선에 적극 참여하는 능동적인 근로자로 변한 것이다. 왜 역할 변화가 필요했을까? 스마트공장 시대에 생산직 근로자가 살아남으려면 근로자 역시 스마트해져야 한다. 로봇을 가르치고 현장을 개선하는 법을 배우는 등 역할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생산직 근로자의 설 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스마트공장 하면 으레 하는 오해 중 하나가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사람이 설 자리를 기계가 대신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면 일의 생산성이 올라가는 만큼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것은 그 아이템만 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성립한다. 예를 들어 볼펜을 만든다고 하자. 볼펜 하나를 만드는 데 3명이 필요했다면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후에는 관리자 1명만 필요한 상황이 온다. 여기까지만 보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맞다. 하지만 이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을 생각하지 않은 결론이다. 기업은 꾸준히 이익을 낼 아이템을 구상해야 한다. 때문에 스마트공장을 도입해 생산직 인원이 줄어도 볼펜을 개선할 점을 찾고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는 인원은 여전히 필요하다.

스마트공장은 노동 강도가 높은 일은 기계가 대체한다. 그렇게 되면 뛰어난 생산성과 믿을 수 있는 품질의 제품을 생산한다. 삼천산업은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면서 제조경쟁력이 향상됐다. 과거 1개 라인에서 시간당 생산량(UHP)이 1200개였다면, 지금은 1개 라인당 1950개를 생산하고 있다. 꾸준히 좋은 제품을 생산하면 기업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 안정적인 공급처에는 일감이 더 생긴다. 일감이 더 생기면 자연히 일할 사람이 더 필요하다. 실제로 삼


1


2


3

1 경남 창원시에 있는 삼천산업 공장에서 근로자가 모니터로 제품 생산 현황을 체크하고 있다.
2 삼천산업 근로자들이 그린 설비 스케치
3 삼천산업 공장에서 작업 중인 현장 근로자들 모습 | C영상미디어

천산업은 스마트공장화 이후 고용 인력은 3년 사이에 60여 명 늘었다. 자연히 매출도 오를 수밖에 없다.

공장이 스마트해지면 근로자의 잔업시간도 줄일 수 있다. 올해는 주60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했다. 이런 추세로 나아가 내년에는 주52시간 근무제를 정착할 계획이다. 잔업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매출도 줄겠지만 이를 기존 직원의 역할 변화나 또 다른 아이템으로 해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도 스마트공장이 주는 장점이다. 임금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 저임금 국가도 마찬가지다. 과거 근로자에게 낮은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물가가 오르고 그에 따라 근로자도 소득 향상을 원하면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제품의 경우는 어떨까. 비슷한 가격에 품질이 균일한 제품과 들쭉날쭉한 제품 중 소비자는 무엇을 선택할까. 당연히 전자다. 삼천산업은 회사를 설립한 32년 중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동화를 추진했다. 제품 수급은 물론 스마트공장을 가동하는 데 안정적이라는 말이다.

"이제 우리 제품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싸고 품질이 좋은 제품이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전 세계에 우리 회사 주력 상품 점유율이 10% 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20~30% 더 확장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어요."

스마트공장의 이점을 톡톡히 보고 있는 삼천산업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안정화하는 데 5년의 시간이 걸렸다. 20여 년 전에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대기업을 제외하면 중소기업 중에서는 초기에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그룹에 속한다. 최 대표는 삼천산업 대표로 취임하기 전 다른 대기업에서 10년 정도 회사생활을 했다. 그때 스마트공장의 장점과 프로세스를 경험했다. 그 기억을 바탕으로 삼천산업도 발 빠르게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려면 두 가지 시스템이 필요하다. 제조실행시스템(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과 전사적자원관리(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다. MES는 주문에서 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관련 정보를 제공해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활동을 관리, 착수, 응답, 보고하는 생산실행관리 시스템이다. MES를 적용하면 모든 생산 활동을 최적화해 의사결정이 빠르고 전략적이어서 주변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최 대표는 MES를 다른 기업보다 빨리 안정화하는 데 성공했다. 보통 시스템 정착에 1년 정도 걸리는 데 비해 현장에서 필요한 기능만 단순하게 넣어 12주 만에 시스템을 구축했다. MES는 직원들이 더 좋아했다. 과거에는 손으로 직접 쓰다가 이제 바로바로 데이터를 넣기만 하면 되니까 일이 쉬워졌기 때문이다.


최원석 삼천산업 대표(왼쪽)와 직원들 | C영상미디어

공장도 직원도 함께 똑똑해지다

MES가 쉽게 안착된 데 비해 ERP시스템은 안정화하는 데 애를 먹었다. ERP는 기업 내 생산, 물류, 재무, 회계, 영업과 구매, 제고 등 경영 활동 프로세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조직의 모든 영역에 정보가 끊이지 않고 흘러 업무처리 방식이나 기업의 구조를 본질적으로 개선해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ERP는 직원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기존의 업무시스템을 모조리 바꾸는 일이 추가로 생긴 탓이다. 기존 업무를 전산으로 옮기고 아직 전산화가 완전히 안 된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초기 1~2년은 그 작업을 하느라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바빴다. 2년 정도 지나자 어느 만큼 시스템을 갖췄다는 느낌

이 들었다. 안정화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렸지만 결론적으로 두 가지 시스템을 도입한 덕에 스마트공장의 이점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스마트공장을 안정화한 다음에는 다른 회사에서 견학을 많이 온다고 최 대표가 귀띔한다. 1년에 100명 이상이 삼천산업이 구축한 스마트 시스템을 보러 온다. 오는 사람마다 관심 분야가 제각각이다. 어떤 사람은 자동화에 관심을 갖고, 어떤 사람은 시스템 구축에 관심을 보인다. 그럴 때마다 최 대표는 두 가지 모두 도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전에만 해도 설비 자동화가 메인이었어요. 현장 컴퓨터 기계로 어떻게 자동화할지가 화두였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자동화 설비를 사물인터넷으로 사무실에서 컨트롤하고 통제하는 게 포함됐어요. 들어오는 정보를 신속하고 빠르게 분석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으면 스마트공장이 아니죠. ERP로 정보가 배포되면 MES에 필요한 생산량이 확인돼서 거기에 맞게 생산이 진행되는데 둘 중 하나가 빠진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견학 오는 사람들에게 이 점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최 대표의 눈에 안타까운 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시스템 도입이 너무 늦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점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에 피력한다.

"스마트공장을 운영하는 법이나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한 현장 근로자들의 직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이 없어요. ERP 교육을 한다고 하면 ERP란 무엇인가, 기능은 무엇인가 이런 이론교육만 있지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현장에 적용하는지를 알려주는 교육이 없어서 아쉬워요. 그나마 있는 교육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전국 단위로 확대해서 지방에서도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으면 해요."





1 삼천산업에서 만드는 세탁기의 진동과 소음을 흡수하는 서스펜션
2 삼천산업 스마트공장 내부 모습 | C영상미디어

1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삼천산업을 방문했다. 그때 스마트공장 지원금을 좀 더 올려달라는 말과 함께 협력사끼리 그루핑을 해서 스마트공장을 함께 구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정책 제안도 내놨다. 영세한 중소기업은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정부의 지원 사업을 신청하려 해도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어마어마해 아예 신청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기업도 있다. 영세한 기업 대부분이 현장인력만 있거나 사무업무는 가족이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협력사가 함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면 기업 하나하나 제품의 품질이 균일해지기 때문에 서로의 경쟁력을 함께 높일 수 있다. 기업 간의 동반 성장이 가능해진다는 말이다.

"사람이 혼자서 살 수 없듯이 기업도 혼자서만 모든 일을 도맡을 수 없어요. 하청업체가 제품 품질을 향상하면 원청업체 역시 경쟁력이 생기죠. 그렇다면 결국 모두가 함께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국내에서 기업하는 사람 대부분이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으로 일자리도 만들고 해외시장에서 승승장구하기 위해 다들 노력하고 있어요. 스마트공장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친절한 **고민상담소**

이선희 | 위클리 공감 기자



shutterstock

고민상담

"취업이 안 돼서 걱정이에요. 살 곳도 찾아야 하는데 막막합니다"

이제 곧 대학 졸업을 앞둔 취업 준비생이에요. 친구들은 하나 둘 취업 소식을 알리는데 저는 1년 동안 50여 곳에 지원서를 넣었는데 면접을 본 곳은 10여 곳에 불과해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취업 부담감이 심해져요. 최근 면접에서는 너무 떨려서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질문에 대한 답도 제대로 못하고 결국 그렇게 면접을 마쳤어요. 이제 곧 졸업이 코앞인데 이러다가 취업을 못할까 걱정이 태산이에요. 지금은 학교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데 졸업하면 당장 살 곳도 찾아야 해요. 등록금, 보증금, 월세, 생활비 등 갑자기 큰돈 들어가야 할 곳이 많아서 막막하네요. 지금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리자니 그만큼 취업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나래 (가명, 23세)

맞춤형 긴급 솔루션

☑ 가장 시급한 건 면접 자신감 회복!

아직 대학생이니 학교 내 있는 대학일자리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볼 것을 권해요. 전문 컨설턴트에게 상담을 받으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의외로 학생들이 자기의 장점과 단점, 적성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상담을 통해서 자신을 관찰하고 분석하다 보면 자기소개서와 면접이 한결 매끄러워질 수 있어요. 또 면접에 대비해 클리닉을 진행하면서 기본적인 자세, 말투, 대표적인 면접 예상 질문을 점검하고 답변을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면접장에서 긴장을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답변할 수 있을 거예요.

☑ 취업연계 장학금과 지원금을 이용하세요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희망할 때는 등록금 전액과 학기당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희망사다리장학금'을 신청해보세요. 또 중소기업 취업 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2년간 300만 원을 납입하면 만기 시 1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 취업청년은 근로소득세 90% 감면과 청년동행카드 발급을 통한 교통비 월 5만 원 지원으로 실질 소득 상승 효과도 누릴 수 있답니다.

solution 1

'나 홀로 취준생'을 위한 취업 도우미 best5



취업고민상담소 전문가의 조언

청년취업아카데미에선 청년이 선호하는 수백만 원짜리 직무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학점 취득까지 가능하니 일거양득이죠. 무료 교육이나 인턴십을 제공하는 정책 중에 나에게 도움 될 만한 것을 찾고 싶다면 청년워크넷(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정책을 직접 찾아볼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카카오톡으로 상담도 받을 수 있답니다.

실무 중심으로 배우고 취직까지 책임지는
청년취업아카데미



대학 재학생과 졸업 예정자들에게 실무 현장에서 필요한 특화된 취업 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해 취업, 창직, 창업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기업, 사업주, 대학, 민간 우수훈련기관이 운영하며 연수생 모집부터 취업 지원 등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 취업 연계를 지원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인문계 학생들을 위해 인문 특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취업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게 했다.

선발기준 대학 졸업 예정자
교육과정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이 가능한 자
대학 재학생 (4년제) 2~3학년, (2, 3년제) 1학년 2학기~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연수과정 정원의 30% 이내에서 우선 선발 가능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272
누리집 청년취업아카데미(www.myjobacademy.kr)

해외취업 성공을 위해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외국에서 취업을 성공할 경우 현지 정착과 장기근속을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우대국가의 경우 최대 800만 원, 선진국 분류 국가의 경우 최대 400만 원을 받는다. 단 한 번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취업 후 1개월, 6개월, 12개월 등 세 번에 걸쳐 지원된다.

대상 월드잡플러스에 사전 구직 등록 후 해외 취업
누리집 월드잡플러스 (www.worldjob.or.kr)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월드잡 플러스 1577-9997

진로와 취업 상담으로 막막함 탈출
대학일자리센터



각 대학에 설치된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전문적인 취업 및 진로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전국 대학교 101개에 설치되어 있어 원스톱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본인 학교가 아니더라도 61개 거점형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상 대학재학생, 졸업생, 지역청년
누리집 온라인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취업부터 인생 고민까지 청년의 고민 해결사
청년센터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는 서울형 청년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기존 청년고용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에게 진로설계, 역량 강화, 진로 모색 등 간접적인 구직활동 지원과 사회참여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문화콘텐츠 분야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을 지원해주는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 청년들의 네트워크 및 활동 공유 공간을 지원해주는 대구광역시 청년센터도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다.

문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02-6358-0632 ,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 031-776-4699,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053-427-1939

열심히 할수록 이득, 참여수당 20만 원 지급
취업성공패키지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은 취약계층, 취업성공패키지 II 유형은 일반 취업 준비생이 참여할 수 있다. 개인별 상담, 직업훈련, 맞춤형 취업 알선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업성공패키지 II 유형에 성실히 참여하면 1단계에선 참여수당 20만 원, 2단계는 참여수당 월 최대 40만 원씩 6개월간 지급되며 3단계는 최대 9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후 미취업 청년,
고교 마지막 학년 및 대학 등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자
누리집 취업성공패키지 (www.work.go.kr/pkg)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solution 2 주거 걱정을 덜어주는 주거지원 5종 세트



주거고민상담소 전문가의 조언

기숙사에서 나오면 당장 살 곳 때문에 고민일 거예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있긴 하지만, 입주 공고를 신청받기 때문에 때가 맞아야 하죠. 그래도 최근엔 공급물량을 점점 늘리고 있으니 공고 날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당장 전세, 월세 보증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니 청년 전용 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시세보다 싸게 최대 6년 거주 가능
행복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주변 시세 60~80%로 공급하고 있어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서울 지역도 전용 26㎡(방 1+거실 1)의 경우 보증금 4000만 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 원대이며, 비수도권의 경우 전용 26㎡는 보증금 2000만 원 내외, 임대료 10만 원 수준에서 거주가 가능하다. 지난해까지는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았으나 2018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이 3만 5000호로 대폭 확대됐다.

대학생 입주자격 미혼인 무자택자로서 대학교 재학 중이거나 대학·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의 취업 준비생
소득기준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 본인 총 자산 7400만 원, 자동차 미소유
입주공고 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참고
문의 마이홈 전화상담실 1600–1004

아르바이트생도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2018년 7월 31일에 출시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최대 연 3.3%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이 완화된 것이 특징이다. 가입 요건만 충족된다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연간 240만 원 한도에서 40% 소득공제 된다.

신청대상 만 19세 이상~2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프리랜서·일용직·아르바이트생 가능),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직전년도 신고소득 有)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누리집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저금리로 대출받는 임차보증금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중소기업에 취업했거나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저리의 전월세임차보증금 대출이다.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 대상으로 대출한도는 임대보증금 100% 이내 최대 1억 원까지 연 1.2%(고정금리)를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이며 만기일시상환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신청대상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 이하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누리집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금쪽같은 내 전세금 지키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깡통주택, 역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이를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전세계약이 종료될 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미리 지급하고 후에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까지고 보증요율은 아파트 연 0.128%, 그 외 주택 연 0.154%다.

보증대상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누리집 주택도시보증공사(khig.khug.or.kr)

만 25세 청년을 위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당장 목돈 마련이 힘든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청년 전용 대출이다. 대출한도는 3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연 2.3%~2.7%로 소득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대출기간은 최초 2년이며 4회 연장 가능해 최장 10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 청년 단독세대주일 경우 적용 가능하지만 대출 1개월 내 은행에 단독세대주로 전입한 등본을 제출한 예비세대주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대상 만 19세 이상~25세 미만 청년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보증금 5000만 원 및 60㎡ 이하 주택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누리집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감수 | 변정현(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허브지원단)· 김은진(부동산114 리서치팀 팀장)

질병관리본부
KCDC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한파대비 건강수칙

저체온증이란?

정의

심부체온이 35℃ 미만으로 내려간 상태로
심장, 폐, 뇌 등 중요 장기의 기능이 저하됨

증상

- 말이 어눌해지거나 기억장애 발생
- 점점 의식이 흐려짐
- 지속적인 피로감을 느낌
- 팔, 다리의 심한 떨림 증상

응급조치

※ 의식이 없는 경우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따뜻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❶ 신속히 병원으로 가거나
빠르게 119로 신고합니다.



❷ 젖은 옷은 벗기고 담요나 침낭을
감싸줍니다.



❸ 겨드랑이, 배 위에 핫팩이나
더운 물통 등을 둡니다.
* 위의 물품이 없는 경우 사람이 껴안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❹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따뜻한 음료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의식이 없는 경우
주의합니다.

동상이란?

정의

혹한에 의해 인체조직이 동결하여 손상되는 것으로
주로 **코, 귀, 손가락, 발가락 등 노출부위**에 발생함

증상

구분	주요증상
1도	찌르는 듯한 통증, 붉어지고 가려움, 부종
2도	피부가 검붉어지고, 물집이 생김
3도	피부와 피하조직 괴사, 감각소실
4도	근육 및 뼈 괴사

응급조치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❶ 환자를 따뜻한 환경으로 옮깁니다.



❷ 동상부위를 따뜻한 물(38~42℃)에
담급니다 (20~40분간).
* 38~42℃: 동상을 입지 않은 부위를 담갔을 때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온도



❸ 얼굴, 귀 : 따뜻한 물수건을 대주고
자주 갈아줍니다.



❹ 손, 발 : 손가락, 발가락 사이에
소독된 마른 거즈를 끼웁니다.
* 습기를 제거하고, 서로 달라붙지 않게 합니다.



❺ 동상부위를 약간 높게 합니다.
* 부종 및 통증을 줄여줍니다.



❻ 다리, 발 동상 환자는 들것으로 운반합니다.
* 다리에 동상이 걸리면 녹고 난 후에도 걸어서는
안됩니다.

건강한 제작환경 창의적 콘텐츠 키운다

장가현 | 위클리 공감 기자

방송제작 인력의 열악한 노동환경, 불공정거래 관행 등 방송영상산업 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2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12월 1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된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후속 대책으로 2022년까지 시행할 세부 계획이 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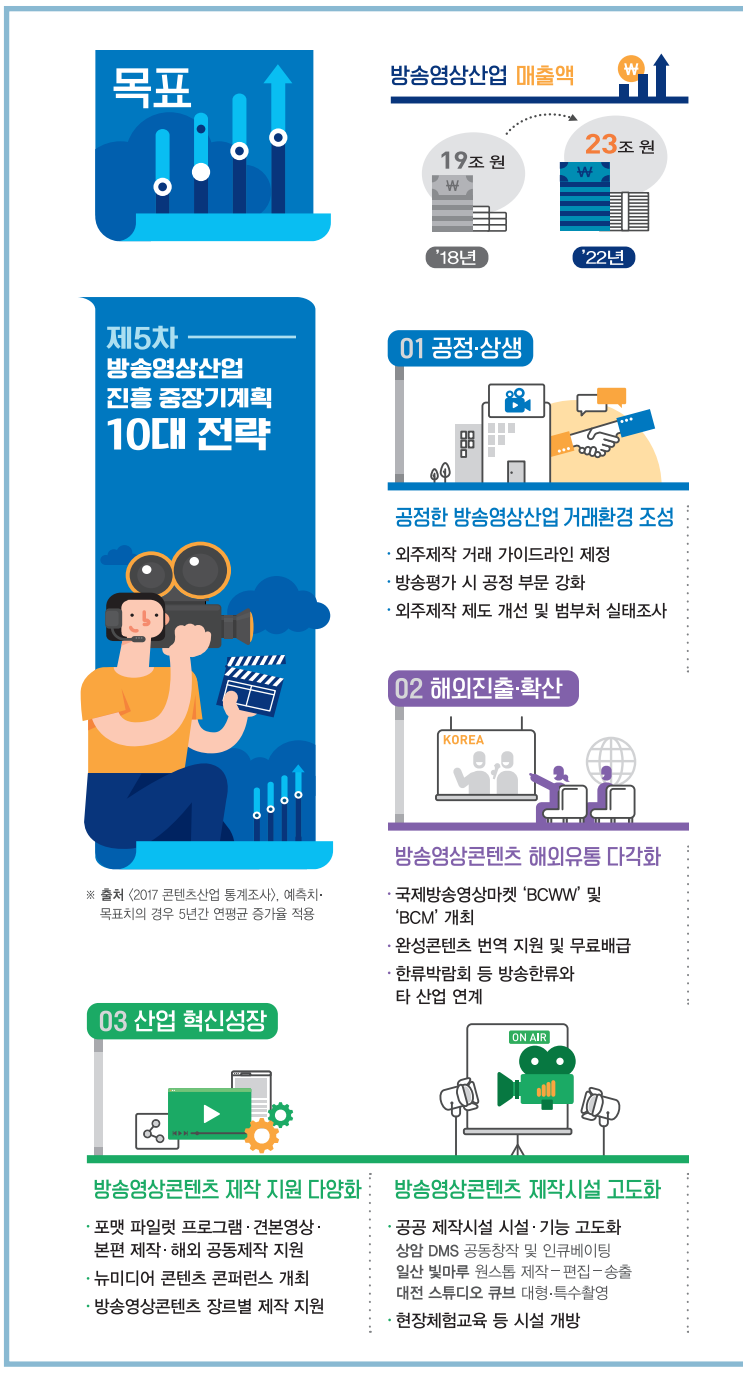
'사람이 있는 방송콘텐츠, 함께 성장하는 산업'이라는 비전에 따라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 ▲산업 혁신성장 기반 구축 ▲해외진출·확산 지원 등 3개 추진 방향과 10대 추진 전략, 45개 과제를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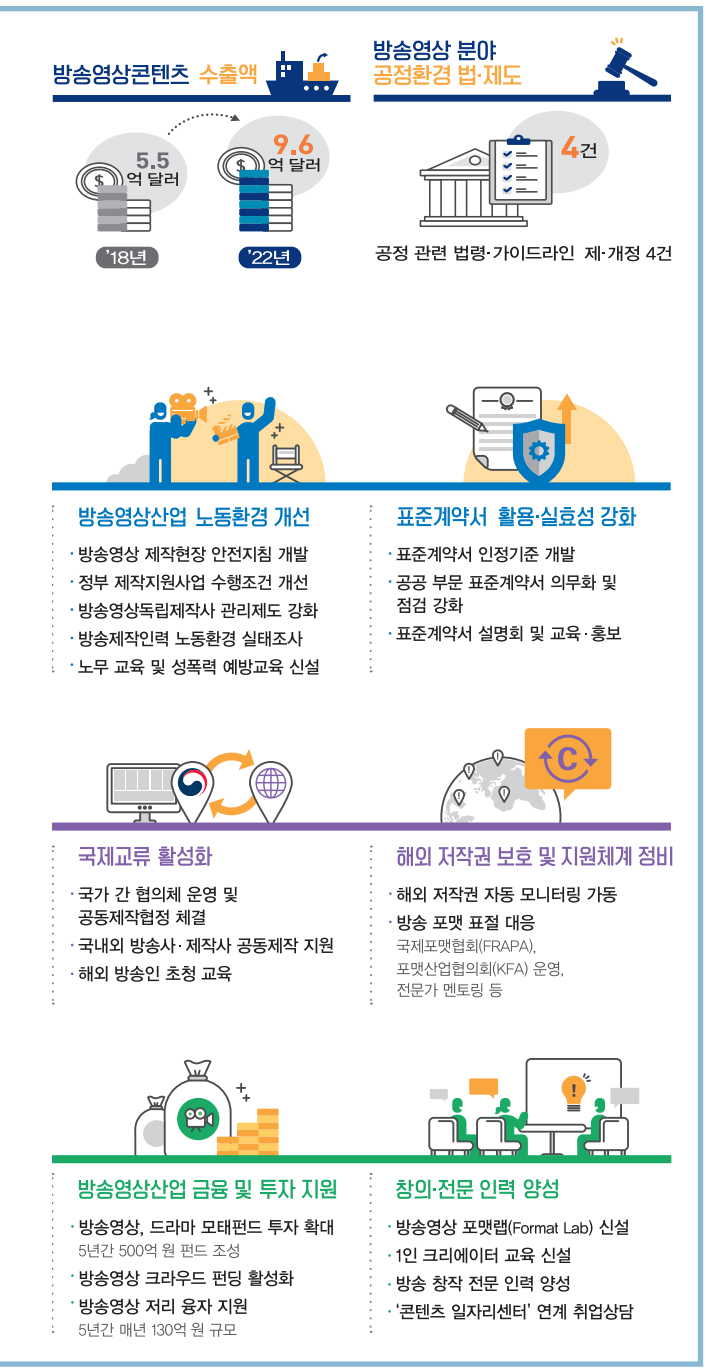
문체부 콘텐츠 제작지원사업부터 노동환경이 달라진다. 제작진과 개별 근로계약을 맺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저임금, 4대 보험료 등 제작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편당 제작지원비를 내년부터 20~30%로 상향 조정한다. 지원사업 평가기준에 '노동인권' 항목을 신설해 임금체불 이력이 있는 제작사는 감점을 받는다. 방송분야에 특화된 노무교육과 표준계약서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등도 대폭 강화된다.

노동환경 개선, 다양한 콘텐츠 지원에 집중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한국정책방송원(KTV) 등 공공채널에서부터 표준계약서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당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반영한다. 문체부·방송통신위원회 등 범부처 합동으로 외주거래 실태조사, 방송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추진한다.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송 분야 공정지수'를 개발해 우수 사업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제작사 관리를 강화해 임금체불 등 고용관계법을 위반한 제작사에 영업제재를 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웹드라마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방송영상콘텐츠 분야도 지원한다. 내년부터 '포맷랩(Format Lab)' 3개소를 새로 선정해 포맷업계와 함께 현장실무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해마다 130억 원 규모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비·인건비에 대한 저리 융자프로그램을 만든다.





'국제방송영상마켓(BCWW)'을 아시아 최대 시장으로 키워 우리 방송영상콘텐츠가 해외로 뻗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든다. '부산콘텐츠마켓(BCM)'은 지역관광과 연계해 상·하반기 양대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G

| 기고 |

사람이 있는 방송콘텐츠, 함께 성장하는 산업

방송영상산업 전반을 둘러싼 환경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장르 간 융합이 본격화되고, 매체·제작·유통, 콘텐츠 소비자 등 전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향후 5년을 대비하는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우리나라 방송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법 92조에 따라 수립·시행)을 내실 있게 마련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의 세 가지 주요 추진 방향은 ▲공정·상생의 생태계 조성 ▲산업 혁신성장 기반 구축 ▲해외 진출 및 글로벌 확산 지원이다.

첫째, 방송영상산업의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방송 제작 인력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공정한 방송영상산업의 거래 환경을 조성하며,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방송영상독립제작사 관리를 체계화한다.

둘째, 방송영상산업의 혁신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포맷랩을 운영하고, 뉴미디어 콘텐츠의 지원을 다각화한다. 또한 제작시설을 고도화하고, 방송·드라마 모태펀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방송영상산업의 건강한 체력 유지를 위해 제작·인프라·금융·인력 양성 분야에서 다양한 영양분을 공급할 계획이다.

방송영상산업에 다양한 영양분 공급을 위한 확고한 의지

마지막으로 한류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확산을 위해 국제방송영상마켓의 위상을 강화하고, 해외 수출 및 투자 유치를 확대하는 한편 국가·사업자 간 교류 협력과 해외 저작권 보호 활동 등 해외 교류 지원도 다양화한다.

방송영상산업은 스마트 미디어를 통해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유비쿼터스 방식으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OTT 등 방송콘텐츠를 소비하는 형태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 같은 시대적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마련한 이 중장기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사람이 있는 방송콘텐츠, 함께 성장하는 산업'이라는 방송영상산업 분야의 비전을 꼭 달성할 수 있길 기대한다.

또한 방송영상콘텐츠와 이를 제작하는 주체들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현실 속에서 미래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주도할 관련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김명중 |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내 삶을 바꾸는 정책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2019. 1. 1. ~ 2019. 12. 31. 적용

NO. 0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학생,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NO. 02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는 수습여부·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NO. 03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①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②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③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 등의 25%(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7%(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 위 금액에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
⇒ 이후 5년에 걸쳐 최저임금에 미산입 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2024년부터는 전부 산입)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란?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월 환산기준 209시간〈유급주휴 8시간〉의 경우: 1,745,150원)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특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의 과반수(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필요

급여를 주거나 받을 때에는 최저임금 반드시 확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www.minimumwage.go.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최저임금위원회

NO. 04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NO. 05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은?

▸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 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주·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 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

※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시 사용하는 월 적용기준 시간(유급주휴시간 포함)
: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는 209시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이중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않는 임금

NO. 06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사용자는 '**①최저임금액, ②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③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④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NO. 07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알아보는

"최저임금 계산법"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19년 2월 월급 1,975,500원을 받는 경우

월급명세서

기본급	1,500,000원
직무수당	150,000원
식대	50,000원
교통비	50,000원
시간외수당	100,500원
상여금	125,000원
급여계	**1,975,500원**

※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100%
(1,500,000원을 12개월로 나눠서 매월 지급)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기본급	1,500,000원
직무수당	150,000원
상여금	0원*
식대·교통비	0원**
계	**1,650,000원**

*상여금 125,000원중 2019년 월환산액 1,745,150원의 25% 초과금액

**식대·교통비 100,000원중 2019년 월환산액 1,745,150원의 7% 초과금액

추려낸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1,650,000원 ÷ 209시간
≒ 7,895원 < 8,350원
∴ 최저임금 위반



다문화가정 부모도 자녀보육료, 아동수당, 가정양육비, 교육비 등 양육비용을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어촌의 혁신성장을 돕는 '어촌뉴딜300' 사업의 2019년도 대상지가 70곳 선정됐다.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나 폭행,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가 운영된다. 인천국제공항에 '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 안내센터(Medical Tourism Support Center)'가 개소했다. 전국 7만 개가 넘는 어린이놀이터의 안전관리를 위한 매뉴얼이 제작·배포된다. 간호인력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2022년까지 5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정현 | 위클리 공감 기자

2022년까지 보건의료 일자리 5만 5000개 만든다

정부는 간호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인력 확충을 포함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2022년까지 5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2월 14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건을 논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실현을 뒷받침할 보건복지 분야 핵심 일자리 정책을 확정·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는 고령화 등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고,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국민의 요구와 의료 인력 수요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 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10억 원을 투자할 때 직간접적으로 생기는 일자리 수를 의미하는 고용유발계수도 16.7명으로 전 산업 평균치(8.7명)의 두 배 수준이다.

간호사의 밤샘근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추가 인력 채용을 포함,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사업으로 2022년까지 93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국내 간호사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543시간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치 2111시간을 크게 웃돈다.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인력 채용에는 신임 간호사를 폭언·폭행으로 괴롭히는 일종의 태움문화 등의 근절을 위한 교육 전담 간호사 배치 방안도 포함됐다.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정부는 간호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도 간호대 입학 정원은 700명 늘어난다. 정원 외 학사편입 제도는 4년제 간호대학과 전문대학으로 확대한다.

문의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정책개발부 02-397-1323

'어촌뉴딜300' 사업 대상지 70곳 선정

어촌의 혁신성장을 돕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인 '어촌뉴딜300' 사업의 2019년도 대상지 70곳이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12월 18일 가기 쉽고, 찾고 싶고, 활력 넘치는 '혁신 어촌'을 본격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우선 내년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9월 지자체 공모를 실시했다. 평가단을 구성해 사업을 신청한 143개 대상지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70곳을 선정했다.

70개 대상지를 사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해양레저형 9곳, 국민휴양형 18곳, 수산특화형 10곳, 재생기반형 6곳, 복합형 27곳 등이다. 지역별로는 부산 1곳, 인천 5곳, 울산 1곳, 경기 1곳, 경남 15곳, 경북 5곳, 전남 26곳, 전북 5곳, 충남 6곳, 강원 2곳, 제주 3곳이다. 사업비는 한 곳당 평균 100억 원으로 총 7000억 원(국비 70%, 지방비 30%)이 투입된다. 우선 내년에는 국비 1729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 대상지 선정에서는 사업 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 여건 등과 함께 여객선 기항지, 재정자립도, 고용·산업 위기지역 등 사회경제적 특수성과 국가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해수부는 내년 상반기에 사업 대상지에 대한 사업 설계를 추진하고, 단기에 완료할 수 있는 선착장 보강, 대합실 마련 등을 먼저 집행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관광, 도시계획·항만기술, 경관·레저, 수산·어촌, 지역경제·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어촌뉴딜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문의 : 해양수산부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 044-200-6047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에 선정된 통영 사량면 진촌항 | 뉴시스

장애학생 인권침해 온라인 제보 가능

정부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나 폭행,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누구나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한다. 또 특수학교에는 교대, 사범대 또는 특수교육 관련 학과 출신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태백미래학교, 서울인강학교 등 사립특수학교는 공립으로 전환한다.

교육부는 12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장애학생의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지·대응하고 예방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매년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문항을 넣고 2021년부터는 3년 주기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도 시행한다.

또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분석전문가, 치료사, 상담사, 의사 등으로 구성된 행동지원전문가단을 운영해 장애학생 행동분석, 행동지원계획 점검, 교원 연수 등 지원에 나선다. 교사와 학부모가 상황별로 장애학생의 위기행동을 지원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상황별 대처 매뉴얼도 개발·보급한다.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역할을 강화해 특수학교 현장지원을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을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다.

문의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044-203-6907

전국 7만 개 놀이터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배포

전국적으로 7만 개가 넘는 어린이놀이터의 안전관리를 위한 매뉴얼이 제작·배포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민원 부담을 줄이고 놀이터 설치·관리자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안내서〉를 배포한다고 12월 17일 밝혔다.

안내서는 관리감독기관(공무원)용과 관리주체(안전관리자)용으로 나뉘어 배포된다. 안내서에는 놀이시설의 설치·등록·안전검사, 배상책임보험 가입, 안전관리자 교육 등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는 의무사항과 업무처리 방법을 정리해 담았다. 안전업무를 맡은 공무원을 위해 법령에 따른 행정처리 절차와 방법 등도 설명했으며, 놀이시설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현황과 유형별 분석, 사고 신고와 처리 방법 등 시설 담당자가 숙지해야 할 내용도 들어 있다.

행안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 행안부 누리집(www.mois.go.kr), 지자체 누리집 등을 통해 12월 18일부터 안내서를 배포했다. 한편 전국 어린이놀이시설은 2014년 6만 2197개에서 2018년 11월 기준 7만 3391개로 증가했다. 놀이시설 안전사고는 연평균 332건 발생하고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044-205-4212

다문화가정 부모도 자녀 양육수당 온라인 신청 가능

다문화가정 부모도 자녀보육료, 아동수당, 가정양육비, 교육비 등 양육비용을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월 19일 다문화가정 부모가 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정 자녀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보육료, 아동수당, 교육비 등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11월 기준으로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는 약 20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외국 국적을 가진 부모는 '복지로'에서 실명인증을 할 수 없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에 권익위는 다문화가정의 일부 세대원이 외국 국적자라 하더라도 온라인상 실명인증을 통해 양육수당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 044-200-7238

인천공항에 의료관광 안내센터 개소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18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 안내센터(Medical Tourism Support Center)'를 개소·운영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 안내센터는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의료서비스와 의료관광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하는 곳이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외국어 소통이 가능한 간호사와 상담사가 상주하면서 전문적인 의료상담을 제공하고, 의료기관을 찾아가는 교통수단에서부터 진료 예약, 주변 음식점, 숙박시설을 안내한다. 안내센터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7번 게이트 옆에 있으며 휴무일 없이 365일 운영된다.

문의 :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 044-202-2982/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044-203-2883



지난 12월 18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열린 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 안내센터 개소식 참석자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 뉴시스



C영상미디어

시각장애인과 시시콜콜 세상사 공유

선수현 | 위클리 공감 기자

준회♡연진, 우리 꽃길만 걷자, 통인동 떡볶이 맛있다, 나잇 값을 해야 할 텐데….

맥락 없는 낙서. 그저 소망과 다짐을 담아 끼적인 몇 줄에 우리 이야기가 담겨 있다. 나와 아무 관련 없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피식' 하고 웃는다. 어쩌면 나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을 누군가에게 동질감을 느끼며 응원과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일지 모른다.

글소리 부스는 이처럼 시시콜콜한 일상을 전달한다. 가벼운 세상살이를 본 적 없을 시각장애인이 대상이다.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노란색 글소리 부스를 찾아 시각장애인이 들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메모지에 적는다. 어떤 이야기라도 괜찮다. 일상의 사소한 이야기를 담을수록 좋다. 메모지가 쌓이면 운영자가 수거한다. 그러면 낭독 봉사단체 '희희랑독'이 정성 담긴 사연을 부드러운 소리로 바꿔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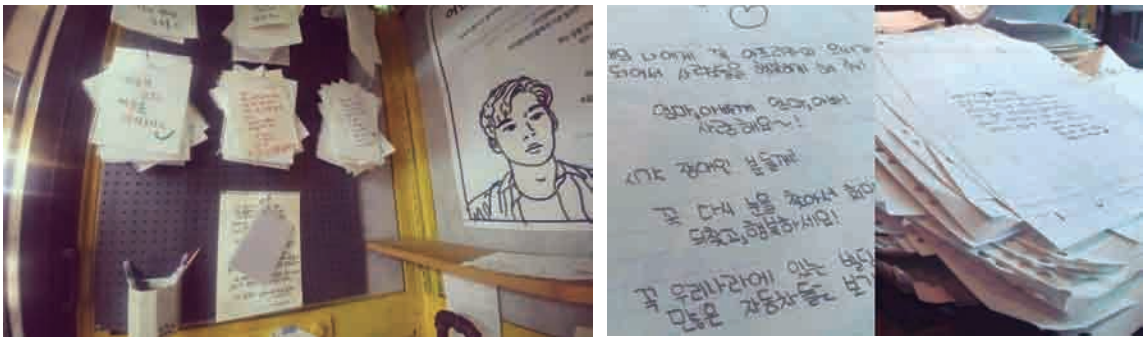
두 번째 방법은 더 간결하다. 하고 싶은 말을 휴대전화에 녹음하면 된다. 녹음 파일을 글소리 부스 운영자에게 메일로 전송하면 끝! 직접 사연을 읽으니 감정이 두 배는 묻어난다.

글소리 부스는 봉사단체를 빌린 목소리와 직접 전송받은 목소리 모두를 취합한다. 세상 각양각색의 이야기가 모이면 이는 곧 오디오북이 된다. 일종의 시각장애인용 앤솔로지다. 때문에 이야기의 주제는 어떤 것이든 관계없지만 너무 짧은 분량은 지양한다. 가장 좋은 분량은 1분 내외다.

점자책보다 오디오북 선호하는 트렌드 파악

글소리 부스를 운영하는 주인공은 김민관 씨다. 그는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라이터스'에서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구상하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에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많은 시각장애인이 점자책보다 오디오북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책보다 영상을 선호하는 사람이 늘어나듯 오디오북의 편리함이 시각장애인을 사로잡은 트렌드였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도 그 이유를 짐작케 한다. 장애등급 1~4급의 시각장애인 중 86%가 점자해독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오디오북을 좀 더 재미있게 만들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찰나,



시민들이 글소리 부스에 남기고 간 메모지들 | 라이터스

공중전화 박스가 김 씨의 눈에 들어왔다. 휴대전화 사용이 늘면서 공중전화 사용량은 줄고 전화박스는 점차 사라져갔다. 그는 사업 제안서를 만들어 공중전화 박스를 관리하는 KT 링커스에 의뢰했다. 긍정적 회신이 돌아왔고 공중전화 박스는 노란색 페인트를 입고 글소리 부스로 변신했다. 수화기 너머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전하던 공간은 시각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가 됐다. 공중전화 박스는 글소리 부스로 재탄생해 과거처럼 누군가의 일상을 나누는 역할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전한 낙서처럼 짧은 글만 있는 건 아니다. 구구절절한 실연의 아픔, 결혼을 앞둔 설렘, 오늘의 서울 여행기, 따뜻한 시 한 구절 등 자유로운 이야기들이 오갔다.

글소리 부스가 있던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2번 출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노란 전화박스의 정체가 궁금해 발길을 멈춘 시민들은 소소한 이야기를 적어놓고 갔다. 많게는 하루 50여 건의 메시지가 쌓였다. 글소리 부스가 알려지자 참가 의사를 표명하는 곳이 늘었다. 경기 한민고, 충북 양업고 등에서 학생들이 직접 글소리 부스를 설치하고 재능기부로 녹음한 파일을 보내왔다. 학생들의 목소리는 오디오클립으로 엮어졌다.

"좋은 글을 나누거나 일상 사연을 전하는 것도 좋아요. 사람 사는 이야기를 소소하게 담거나 참고할 수 있는 이야기가 시각장애인에게 미풍처럼 전해지길 바랍니다. 소리에 마음을 담아주세요."

너무 별 내용 아닌 이야기를 전하기에 간혹 시각장애인들의 오해를 사기도 한다. 시답잖은 이야기로 장난하는 것 아니냐고. 김민관 씨는 진지했다. 그동안 시각장애인을 위해 정부·지자체 단위에서 복지사업을 펼쳤지만, 이처럼 소소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프로젝트는 없었기 때문이다. 역시 그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많았다. 마음이 담겨 더 감동이란 후기도 전해왔다. 그들을 생각하며 움직여주는 따스함이 전달된 것이다. 가끔 누군가 생각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이 될 때가 있듯 평범한 목소리가 듣는 이에게는 힘이 됐던 것이다.

노란 공중전화 박스는 세상과의 공감대 창구

김민관 씨는 글소리 부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세상에 노란 공중전화 박스가 많아질수록 시각장애인이 세상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접점이 늘어날 것이다. 우리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메시지도 강해진다.

"글소리 부스는 확대해야 의미가 있어요. 점차 전국 단위로 글소리 부스를 많이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목소리 재능기부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꼭 부스를 찾지 않아도 괜찮아요. 직접 녹음해서 메일로 보내주는 것도 좋습니다. 누군가가 시각장애인을 생각하고 있다는 마음이 들게 해주세요."

현재 글소리 부스는 경복궁역에서 서울 은평구 소재 서울혁신파크 내로 자리를 옮겼다. 혹시라도 노란 공중전화 박스가 보인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길 바란다. 시각장애인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공감대를 전해주는 데 1분이면 충분하다. G

시각장애인에게 소리를! 글소리 부스 참여 방법

서울혁신파크 내 글소리 부스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또는 직접 메시지를 녹음해 이메일(minmin86@naver.com)로 보내주세요. 시각장애인과 일상사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조화와 갈등’의 ‘갈등과 조화’

서경덕(1489~1546)은 조선 중기의 철학자다. 송도(지금의 개성)의 화담이란 곳에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화담 선생’이라고 불렀다. 서경덕은 집안의 기대와 달리 벼슬을 하지 않고 오로지 학문 연구만을 했다.

서경덕은 어렸을 적에 과거시험 공부를 하기도 했지만 포기했다. 과거시험을 안 본 것은 아니었다. 어머니가 간곡히 부탁해 과거시험을 보아 사마시에 합격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과를 보기 위해 성균관에 들어가 공부하다가 그만두고 나와버렸다.

벼슬을 할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당시 실력자였던 조광조나 김안국이 여러 차례 서경덕을 추천했다. 그러나 서경덕은 모두 거절했다. 56세 때에는 중종이 ‘후릉참봉’이란 벼슬을 내렸다. 후릉참봉은 조선 제2대 임금 정종과 왕비 정안왕후의 무덤을 관리하는 명예직이었다. 서경덕은 이조차 받지 않고 정중히 사양했다.

제자들이 벼슬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서경덕은 시대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어떤 시대였기에 시대가 맞지 않는다고 했을까. 서경덕이 살았던 때에는 사화가 빈번히 일어났다. 사화란 정치투쟁으로 인해 수많은 벼슬아치와 학자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을 말한다.

서경덕이 어렸을 때인 연산군 시절에는 무오사화와 갑자사화 등 두 차례의 사화가 일어났다. 연산군을 몰아내고 임금이 된 중종은 연산군 시대의 폐정을 혁파하기 위해 인재를 등용했다. 그때 등장한 대표적인 인물이 조광조였다. 그러나 조광조 역시 정치투쟁의 희생자가 되었다. 기묘사화가 일어나 조광조는 불과 38세의 나이에 목숨을 잃었다. 이런 정치적 격변에 영향을 받아 서경덕은 벼슬아치가 되는 길을 포기했다.

서경덕은 어렸을 적부터 남다른 탐구심을 보여주었다. 서경덕의 집안은 증조부, 조부 그리고 아버지가 모두 하급 무관직을 지낸 보잘것없는 집안이었다. 그래서 남의 땅을 빌려 소작을 하며 살았다. 서경덕은 어렸을 때부터 집안살림을 돕기 위해 바구니를 들고 나물을 캐러 다녀야 했다. 그러나 빈 바구니로 돌아오기 일쑤였다.

부모가 그 이유를 묻자, 서경덕은 이렇게 말했다. “나물을 뜯다가 종달새 새끼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날에는 땅에서 한 치를 날더니 다음 날에는 두 치, 그다음 날에는 세 치를 날다가 차츰 하늘로 날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종달새 새끼가 나는 것을 보고 그 이치를 생각해보느라 나물을 캐지 못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연을 관찰하고 스스로 그 이치를 깨닫고자 했던 것이다.

서경덕은 자득지학(自得之學)을 했다고 한다. 스스로 터득하며 학문을 했다는 말이다. 서경덕은 자신의 학문이 “모두 고심하며 전력을 다해 얻어낸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일까. “나는 스승을 얻지 못해 공부하는 데 지극한 어려움 겪었지만, 후대 사람들은 나의 말을 따르면 공부하기가 나처럼 힘들지 않을 것이다”라며 자신의 학문에 자신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제자들에게도 “글자로 쓰인 내용은 옛 사람들의 생각의 찌꺼기에 불과하니, 진짜로 중요한 일은 스스로 알아내는 일이다”라고 강조하곤 했다.

서경덕이 독학을 한 이유는 집안이 가난해 스승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만이 아니다. 서경덕은 14세 때 선생을 모시고 공부한 적이 있었다. 그때 〈서경(書經)〉의 첫머리 ‘요전’ 편을 공부하는데, “일 년은 365일 여이니 윤달로서 사시(四時)를 정하고 해를 이룬다”는 구절이 나왔다. 양력으로 1년은 365일이고 음력으로 1년은 355일이기 때문에, 양력과 음력을 일치시키기 위해 윤달을 넣는다는 얘기다.

그런데 선생은 이 원리를 알지 못해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서경덕은 보름 동안 스스로 탐구해 그 원리를 깨치게 되었다. 그 이후로는 스승을 두지 않고 스스로 터득해가는 공부를 했다.

서경덕은 18세 때 〈대학(大學)〉을 읽다가 ‘격물치지(格物致知)’라는 말을 발견했다. 격물치지란 ‘사물을 연구하여 앎에 이른다’는 말이다. 서경덕은 격물치지가 진정한 학문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이후 사물에 대한 연구에 집중했다.

서경덕의 학습 방법은 독특했다. 서경덕은 “스무 살이 되면서부터 한 번 저지른 실수를 두 번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할 정도로 매우 총

명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공부를 할 때에는 다른 요령을 부리지 않았다. 알고자 하는 사물이 있으면, 그 이름을 적어 방 벽에 붙여놓고는 사색과 관찰을 했다. 확실히 그 사물에 대해 깨달을 때까지 식음을 전폐한 채 연구했다.

이런 식으로 3년을 공부해 큰 통찰을 얻었다고 한다. "벽 위에 마도를 붙여놓고 3년 동안 들어앉아 공부를 한" 결과였다. 마도는 중국의 전설상 인물 복희씨가 세상을 다스릴 때 용마가 지고 나왔다는 문서다. 마도를 붙여놓았다 함은 우주만물의 원리가 연구 주제였다는 얘기다. 서경덕은 3년간의 연구 끝에 우주만물의 원리를 알아냈다고 자부했다.

서경덕은 자신이 알아낸 원리에 대해 한 시에서 이렇게 썼다. "바람이 지나간 뒤 달은 밝게 떠오르고/ 비 온 뒤 풀 냄새 향기롭다./ 하나가 둘을 타고 있는 것을 보니 물(物)과 물(物)이 서로 의지해 있구나./ 오묘한 낌새를 꿰뚫어 얻어 방을 비우고 앉으니 빛이 생겨난다."

바람과 달, 비와 풀 냄새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했다. 바람과 달은 겉보기엔 전혀 달라 보이지만 모두 '기(氣)'이기 때문이다. 비와 풀 냄새 역시 마찬가지다. 그것들도 모두 기이기 때문에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이런 이치를 알면 밝은 빛, 즉 진리를 얻게 된다고 했다.

이런 통찰을 검증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30년 넘는 세월을 연구하며 자신의 통찰을 검증한 끝에, 마침내 57세가 되어서야 "천고의 의문을 풀었다"고 했다. 그래서 그때 〈원이기(原理氣)〉, 〈이기설(理氣說)〉, 〈태허설(太虛說)〉, 〈귀신사생론(鬼神死生論)〉 등 네 편의 짧은 논문을 썼다. 이 논문들을 작성한 이유에 대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논문들은 여러 성인들이 다 전하지 않은 경지까지 이해한 것을 담고 있다. 중간에 잃어버리지 않고 후세 학자들에게 전해주고 온 세상에 두루 알리면, 먼 곳이든 가까운 곳에서든 우리나라에 학자가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서경덕은 '우주만물이 기(氣)의 움직임에 의해 생겨난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했다. 우주만물의 근원은 '기'이고, 기가 스스로 움직여 만물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기'가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의 기 안에 대립하는 두 개의 기, 즉 양기와 음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경덕은 이렇게 설명했다. "하나의 '기'라 했지만 하나는 이미 둘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는 둘을 생성하지 않을 수 없다. 둘은 스스로 생겨나지만 극복하여 다시 하나가 된다. 그래서 생성이 극복이고, 극복이 생성이다."

하나에서 둘이 생겨나기 때문에 조화가 갈등으로 변한다. 둘은 다시 하나가 되므로 갈등이 조화로 변한다. 그러므로 조화가 갈등이 되고, 갈등이 조화가 된다. 조화와 갈등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화를 이루려면 갈등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갈등이 있는 곳에 조화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다. 현실은 조화롭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런 현실을 이해해야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서경덕의 생각이었다. 그런 혜안이 필요한 때다. G

"조화를 이루려면 갈등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갈등이 있는 곳에 조화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다. 현실은 조화롭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런 현실을 이해해야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서경덕의 생각이었다. 그런 혜안이 필요한 때다."



홍승기 | 〈한국 철학 콘서트〉, 〈철학자의 조언〉 저자



고래는 고기보다 똥이 좋죠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 때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거나 이성 친구가 없는 사람도 견디게 해준 분들이 계십니다. 성룡과 해리슨 포드 같은 명배우죠. 성룡의 '폴리스 스토리' 시리즈와 해리슨 포드의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는 명절을 명절답게 만들어준 고마운 영화입니다.

'인디아나 존스'에서 해리슨 포드는 애리조나대학의 고고학자(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도굴꾼에 가까운) 헨리 월튼 존스 2세 교수 역할을 맡았습니다. 인디아나는 교수의 별명이죠. 인디아나 존스의 실제 모델은 미국인 탐험가 로이 채프먼 앤드루스(Roy Chapman Andrews, 1884~1960)입니다. 그는 고래, 상어, 늑대 그리고 몽골 도적떼와 중국 병사에게 습격을 당하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는데, 그의 에피소드가 영화 '인디아나 존스'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고학자가 아니라 자연학자였습니다. 실제로 1923년 몽골 고비사막에서 세계 최초로 공룡 알 화석을 발굴했죠. 이것이 바로 전 세계 자연사박물관이라면 어디에나 모형으로 전시되고 있는 오비랍토르의 알입니다. 덕분에 그는 〈타임〉지의 표지 모델이 되기도 했죠. 그는 미국 자연사박물관의 바닥을 청소하고 표본을 정리하는 일로 시작했지만 1934년에는 미국 자연사박물관 관장에 취임합니다. 그는 가장 성공한 자연학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로이 채프먼 앤드루스는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깊습니다. 그의 동상이 울산 장생포에 세워져 있을 정도죠. 도대체 왜 우리나라에 그의 동상이 있을까요? 앤드루스는 1911년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미국 스미스소니언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귀신고래(Devil Fish)가 바로 앤드루스가 1912년 울산에서 채집한 표본입니다.

귀신고래는 보통 회색고래(Gray Whale)로 불립니다. 전체적으로 회색빛을 띠거든요. 그런데 왜 귀신고래라고 부를까요? 해안에서 머리를 세우고 있다가 감쪽같이 사라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라는 설명이 많습니다. 귀신고래는 바다 바닥에 사는 무척추동물을 주로 먹으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인지 귀신고래는 온몸에 따개비와 바다벼룩을 붙이고 삽니다. 그래서 더 귀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앤드루스는 다르게 설명합니다. 귀신고래는 포경선이 나타나면 새끼를 구하기 위해 배를 파괴하고 고래잡이를 죽이기도 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라는 것이지요. 두 설명 모두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귀신고래의 우리말 이름은 쇠고래입니다. 귀신고래나 회색고래는 나중에야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름이죠.

'인디아나 존스', 그러니까 로이 채프먼 앤드루스가 우리나라에 온 이유는 귀신고래를 연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9세기 말까지 캘리포니아에는 귀신고래가 잔뜩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10년경이 되니 캘리포니아 인근에서는 귀신고래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기름을 얻기 위해 하도 잡아서 멸종하기에 이른 것이지요. 그때 앤드루스는 한국에 귀신고래가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거의 멸종된 귀신고래가 정말로 한국에는 있는지 확인하러 온 것이죠.

그런데 정작 현재는 정반대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북아메리카의 태평양 해안에는 귀신고래가 무려 1만 8000마리 이상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에서는 1966년 이후 거의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귀신고래에 현상금



을 걸었습니다. 사진으로 찍으면 500만 원, 그물이나 좌초한 개체를 신고하면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 많던 귀신고래가 왜 사라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군가가 잡아먹었기 때문입니다. 귀신고래는 큰 고래입니다. 길이가 15미터, 몸무게 36톤까지 자라지요. 이렇게 커다란 고래를 도대체 누가 잡아먹을 수 있을까요? 귀신고래의 천적은 범고래입니다. 영화 '프리 윌리'에 주인공으로 나오는 고래입니다. 범고래는 '이빨 고래'로 영어로는 'Killer Whale'이라고 할 정도로 사나운 포식동물이죠. 그런데 과연 범고래 때문에 귀신고래가 사려졌을까요? 지구에는 범고래보다 더 무서운 포식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근에는 귀신고래가 없습니다.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고래는 늙어서 죽습니다. 더 이상 먹이를 찾아다니고 숨을 쉬러 떠오를 힘이 없어지면 죽는 거죠. 어차피 죽을 고래라면 우리가 먹으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더 쓸모가 많거든요. 고래는 바다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다 생태계가 유지됩니다. 바다는 넓은 데다가 아주 깊습니다. 얕은 바다와 달리 깊은 바다는 아주 황량합니다. 먹을 게 없는 곳입니다. 당연히 생태계가 연결되기 어렵죠. 고래 사체는 황량한 바다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입니다.

깊은 바다에 가라앉은 고래 사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데 100년 정도가 걸립니다. 처음에는 심해상어, 먹장어, 게가 몰려와 살을 발라 먹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동물과 미생물이 와서 뼈와 찌꺼기를 먹죠. 깊은 바다에 마치 섬처럼 군데군데 놓인 고래 사체는 심해 생물에게는 오아시스 같은 존재이면서 바다 생태계를 연결하는 징검다리입니다.

살아 있는 고래는 더 큰 역할을 합니다. 지구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소비하고 산소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생물은 바다에 살고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입니다. 그런데 바닷 속의 식물성 플랑크톤이 자라기 위해서는 철 성분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닷물에는 철이 부족해요. 플랑크톤을 살려주는 게 바로 고래입니다. 고래는 온 지구 바다를 누비면서 똥을 누거든요. 고래 똥에는 철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고래 똥이 있는 곳에서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잘 자랍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양분을 만들고 산소를 배출하지요. 양분은 동물성 플랑크톤과 어류를 통해서 우리 사람까지 전달됩니다.

고래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일본이나 노르웨이에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불법 포획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고래가 줄어들면 고래 똥도 줄어듭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이 줄어들고 지구온난화는 가속화되겠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래 고기가 아니라 지구 기후를 지켜주는 고래 똥입니다. G

필자 이정모는 서울시립과학관 관장으로 재직 중이다. 생화학을 전공하고 대학 교수를 거쳐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을 지냈다. 〈250만분의 1〉,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내 방에서 콩나물 농사짓기〉 등 읽기 편하고 재미있는 과학도서와 에세이 등 60여 권의 저서를 냈고 인기 강연자이자 칼럼니스트로도 맹활약 중이다.



이번 주엔 뭐하고 놀지

백악기 시대, 살아남은 공룡들의 이야기를 구현한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다. 학자의 관점에서 논문과 저서를 샅샅이 뒤져 쓴 몸에 대한 이야기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통을 표현하는 법을 다룬 책이 출간됐다. 1909년 영국 런던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코믹 뮤지컬까지, 이번 주도 즐길 거리가 풍성하다.

장가현 | 위클리 공감 기자

백악기 최후의 승자가 결정된다

영화 | 점박이, 한반도의 공룡 2



8000만 년 전 백악기 시대에 발생한 재난 이후, 공룡의 제왕 타르보사우르스 점박이는 모든 가족을 잃고 막내와 둘만 남는다. 아빠 점박이와 달리 겁이 많고 소심한 막내는 다른 공룡들의 놀림감이다. 어느 날 막내가 악당 데이노니쿠스 3인방에게 붙잡히고, 점박이는 막내를 찾기 위해 모험을 시작한다. 막내를 찾으러 다니던 길에 사라진 딸을 찾는 송곳니, 넉살 좋은 초식 공룡 싸이를 만나 힘을 합쳐 아이들을 구하기로 한다. 점박이는 병풍바위와 활화산 지대,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과 협곡을 지나는 모험 끝에 드디어 막내의 단서를 찾는다. 하지만 초강력 돌연변이 공룡이 나타나 그들의 모험을 방해한다.

개봉일 12월 25일



생존만을 위한 사투

영화 | PMC : 더 벙커

글로벌 군사기업(PMC) 블랙리저드의 캡틴 에이헵(하정우)은 미국 CIA의 의뢰로 거액의 프로젝트를 맡는다. 작전 장소인 DMZ 지하 30m 비밀벙커에는 약속한 타깃이 아닌 뜻밖의 인물인 북한의 킹이 나타난다.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현상금이 걸린 킹을 잡기 위해 에이헵은 작전을 변경한다. 에이헵과 12인의 크루는 힘을 합쳐 킹을 납치하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팀은 다른 군사기업의 기습과 미국 CIA의 폭격으로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진다. 무너진 지하 비밀벙커 안에서 부상을 입은 에이헵은 인질로 잡혀 있던 북한의 엘리트 닥터 윤지의(이선균)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개봉일 12월 26일

지식의 최전선에서 몸을 둘러싼 지식을 검증하다

책 | 우리 몸이 세계라면

1120편의 논문을 검토하고, 300여 편의 문헌을 바탕으로 쓴 책이다. 1348년 프랑스 국왕 필리프 6세의 지시로, 파리 의과대학 교수가 쓴 흑사병 원인에 대한 보고서부터 암 치료에 영향을 주는 세포 내 수용체가 사회제도의 영향으로 변화한다는 최신 논문까지. 시대와 공간을 가로지르며 우리 몸을 연구한 지식인의 분투와 경합을 담아냈다. 저자는 인간의 몸은 다양한 관점이 각축을 벌이는 전장이라고 말한다. 몸을 둘러싼 지식의 생산 과정을 말하면서, 어떤 지식이 생산되고 어떤 지식은 생산되지 않는지, 누가 왜 특정 지식을 생산하는지, 상식적인 질문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하고 있다.

저자 김승섭(동아시아)







기상천외하고 세련된 코미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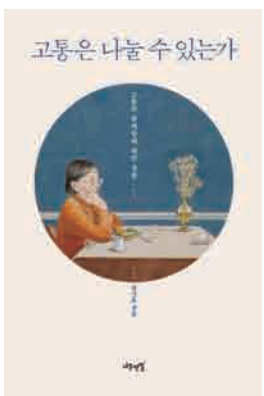
뮤지컬 | 젠틀맨스 가이드

지렁이도 두 발로 직립 보행하는 날이 오고야 말리라! 1909년 영국 런던, 신분도 낮고 무직인 몬티는 어느 날 자신이 고귀한 다이스퀴스 가문의 여덟 번째 후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기쁜 소식을 사랑하는 시벨라에게 털어놓자 시벨라는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한다. "그럼 네가 후계자가 되려면 네 앞의 후계자가 모두 죽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후계자가 되고 싶은 몬티는 궁리 끝에 다이스퀴스 가문의 최종 후계자가 되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생각해낸다. 닮은 듯 다른 여덟 명의 후계자들이 모이자 상황은 자꾸 꼬여만 간다. 몬티는 과연 무사히 후계자가 될 수 있을까?

기간 2019년 1월 27일까지
장소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02-3485-8700

고통과 함께함에 대한 성찰

책 |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고통을 드러내는 것에 소극적이었다. 고통은 부끄러운 것이고 고통을 말하는 것은 나약한 짓이라고 비난했다. 고통을 겪는 이들은 고통을 말하지 못하는 또 다른 고통에 시달렸다. 그러나 이제 고통은 늘 상존(常存)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겼다. 책은 우리가 고통을 드러내는 일을 잘 다루고 있는지 묻는다. 사랑과 정의에 감싸인 사회에서 존재하기 위해 자신의 고통을 전시하면서 소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묻는다. 사회학자인 저자는 켜켜이 쌓여 있는 고통의 지층을 한 겹씩 들여다보며 우리 시대가 고통을 다루는 법을 보여준다.

저자 엄기호(나무연필)

문화체육관광부 여가 프로그램

사람이 있는 문화, 쉼표가 있는 삶



정전 65주년 기념
6·25전쟁 포로 아카이브 자료 공개
전쟁 포로, 평화를 말하다

생존이 불확실한 전쟁터에서 삶의 희망을 갈구했던 전쟁 포로들의 이야기를 아카이브 자료로 볼 수 있는 전시다. 심문과 재심문, 강요된 선택과 교육으로 이념 대결과 폭력에 내던져진 포로들의 고통이 생생히 전해진다.

기간 2019년 1월 17일까지
장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문의 02-3703-9200



우리 서화의 아름다움
손세기·손창근 기증 명품 서화전

국립중앙박물관은 손세기·손창근 부자의 기증품으로 김정희의 예술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정희의 대표작인 '불이선란도'와 '잔서완석루', 김정희의 수제자 허련이 그린 '김정희 초상' 등이 전시된다. 19세기를 대표하는 남계우의 '호접묘도' 외에 장승업의 회화도 볼 수 있다.

기간 2019년 3월 24일까지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2층 서화실
문의 02-2077-9483

Review







얼마 전 친구와 드라이브를 갔다가 조양방직에 다녀왔는데 이렇게 기사로 만나니 반가웠어요. 폐공장이 문화공간으로 바뀐 게 수도권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전국 각지에 조성돼 있을 줄은 몰랐어요. 공간에 대한 추억도 살리고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의미도 담으니 정말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오래된 것을 없애기보다 옛것을 기억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시도가 많아졌으면 합니다.

김동우 | 서울 구로구 경인로 343

연말특집 '나누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읽고 마음이 훈훈해졌어요. 요즘 뉴스에서 사건사고를 접하면서 우리 사회가 병들었다는 생각에 안타까워했거든요. 특집 기사는 우리 주위에 아직은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싶어서 참 좋았어요. 기사에 소개된 사람들처럼 거창하진 않아도 저도 제 나름대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생각해봐야겠어요.

예승아 | 서울 강남구 자곡로 192

'뭉클스토리' 기사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사실 그 기사를 보는 내내 부모님의 삶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됐어요. 부모님께서 치열하게 사신 덕분에 지금 제가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거겠죠. 저도 부모님께 자서전을 제안해봐야겠어요. 그 인생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삶이었다는 것을, 부모님의 평범한 삶이 제게는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 또한 하루하루를 일기로 기록했다가 나중에 자서전으로 발간해볼 생각이에요.

한수연 | 광주 서구 금호운천길

482호 퀴즈 정답&당첨자

[마을, 희망]

김동우(서울 구로구 경인로 343) **예승아**(서울 강남구 자곡로 192) **한수연**(광주 서구 금호운천길)

디지털 〈위클리 공감〉 이곳에서 만나세요!

post.naver.com/mcst_pr
www.facebook.com/wegonggam
www.tapzin.com/app
ridibooks.com
blog.naver.com/mcst_pr

공유와 댓글을 통해 많이 참여해주세요.

독자 여러분께 알립니다

지면 개편으로 인해 **〈위클리 공감〉** 484호와 485호에는
퀴즈가 나가지 않습니다.
새해에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하고 찾아뵙겠습니다.

위클리 공감 누리집 gonggam.korea.kr
정책브리핑 누리집 www.korea.kr

여성가족부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



불법촬영 범죄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행정안전부





긴급신고는 112,119
민원상담은 110



긴급신고 통합서비스
홍보모델 김소혜

